

조선조 문인의 陶淵明 四言詩 수용 양상 연구*

이 훈**

< 目 次 >

I. 서론	1. 작품별 형식과 창작 배경 및
II. 陶淵明 四言詩의 형식과 수사적 특징	압운 양상 2. 修辭와 詩意의 유형별 수용 양상
1. 詩題와 형식상의 특징	양상
2. 詩語와 句型의 수사적 특징	IV. 결론
III. 조선조 ‘和陶四言詩’의 轉變과 양상	

<국문 초록>

본고는 陶淵明의 四言詩를 和作한 조선조 문인의 작품을 ‘和陶四言詩’로 명명하고, 도연명 사언시를 수용한 양상을 구명하면서 수용의 내부적 발전 정도와 문학사적 의미를 탐색한 것이다.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은 조선조 ‘화도사언시’ 문인은 김시습·신흠·유계·김수항·김창협·조유수·조종진·이만수 등으로,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도연명의 사언시는 형식과 수사적 측면에서 의식적으로 『詩經』의 양식을 계승한 것으로, 復古 내지 尙古의인 성향을 지닌다. 이에 대한 조선조 ‘화도사언시’는 창작 과정에 古風을 추구하고자 하는 문학적 지향이 내포되어 있지만, 한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5A07920366)

** 강원대학교 강사 / lh8329@hanmail.net

편으로는 문인별 문학성의 차이로 인해 古風 추구 인식에 편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조선조 ‘화도사언시’는 詩題와 형식에서부터 다채로운 양상을 보이는데, 화도사언시 문인들은 도연명 사언시의 체제를 그대로 수용하는 한편 자신만의 개성으로 변주하기도 하였다. 개인별 창작 시기는 대체적으로 중년 이후이며 작가가 처한 상황은 심적인 고뇌를 겪던 시기였다. 이러한 양상은 도연명의 사언시가 言志와 述懷에 특징이 있음을 반증한다. 아울러 조선조 ‘화도사언시’의 창작 연대가 17세기에 집중된 것은 특기할 점으로, 이는 17세기에 들어와 古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한시사의 흐름과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

도연명 사언시와 조선조 ‘화도사언시’ 간에는 韻字에 차이가 있다. 조종진과 이만수의 경우는 마지막 운자를 原詩의 운자와 동일한 韻目에 속한 다른 글자로 전환하는 依韻의 방식을 구사하여 주제의식의 내면화를 구현하였다. 김창협の場合は 도연명의 사언시가 지닌 주제의식에 부합하여 和作하되 和韻하는 방식으로 창작하지 않았다.

조선조 ‘화도사언시’에 있어서 가장 특색 있는 부분은 수사적 측면이다. 김시습의 경우는 도연명 사언시의 모든 수사적 특징을 함유한다. 그러나 17세기 신희·유계·김수항·김창협의 경우에는 수용과 변주에 편차가 있다. 18세기 조유수의 경우에는 수용의 정도가 희박해졌으며, 19세기 전반기 조종진과 이만수의 경우에는 수용의 정도가 다시 높아졌다. 김창협이 도연명의 詩題를 활용하지 않은 점과 和韻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그의 작품은 조선조 ‘화도사언시’의 역사적 轉變 과정에서 전환점이 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김창협은 17세기에 대두한 북고주의 시풍에 비판을 가했고, 이로 인해 18세기는 개성주의가 주된 문풍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18세기 조유수의 작품이 수사적 측면에서 도연명의 사언시를 수용한 정도가 낮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정조의 문체반정과 詩選集 편찬 사업에 영향을 받은 19세기 전반기 관료문인들은 북고주의 내지 상고주의를 표방하였는데, 이것이 19세기 전반기 조종진과 이만수의 작품에 도연명의 사언시를 수용한 정도가 다시 높아진 이유이다.

이와 같이 조선조 ‘화도사언시’는 도연명의 사언시가 지닌 제특성을 시대별 문풍과 작가별 문학적 지향으로 재구성하는 내면화의 轉變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조선조 ‘화도사언시’의 창작 방식은 압운과 詩意의 수용 양상에 따라 ‘和韻和意’ 유형, ‘和意不和韻’ 유형, ‘和韻和意’와 ‘和韻不和意’ 결합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和韻和意’의 유형은 도연명 原詩의 韻字를 재사용하고 詩意를 수용하여 내면화한 것으로, 김시습·신희·유계·김수항·조유수·조종진의 작품이 해당된다. ‘和意不和韻’ 유형은 도연명 原詩의 韻字를 재사용하지 않으면서 原詩의 詩意를 수용하여 내면화한 것으로, 김창협이 해당된다. ‘和韻和意’와 ‘和韻不和意’ 결합 유형은 도연명 原詩의 운자를 재사용하되 原詩의 詩意를 수용하여 내면화한 것과 독자적인 新意를 구현한 것이 병존하는 경우로, 이만수의 작품이 해당된다. 특히 이만수의 화도사언시는 도연명 사언시 전체를 화운한 유일한 작품이라는 점과 도연명 사언시의 형식과 율격을 내면화하면서도 독자적인 新意를 구현한 점에서, 조선조 ‘화도사언시’의 내부적 발전 정도에 있어 최고의 정점에 위치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주제어】 陶淵明, 四言詩, 和陶四言詩, 古風, 和韻和意, 和韻不和意, 和意不和韻, 내면화

I. 서론

陶淵明(365~427)은 顏延之(384~456)의 「陶徵士誄」와 沈約(441~513)의 『宋書·隱逸傳』에 의해 은자로 주목을 받고 鍾嶸(468~518)의 『詩品』에서 ‘隱逸詩人之宗’으로 평가받으며 蕭統(501~531)에 의해 『陶淵明集』이 편찬된 이후, 唐代 전원시인들의 ‘慕陶’를 거쳐 宋代에 이르러서는 蘇軾과 朱熹에 의해 본격적으로 전범화 되었다.¹⁾ 특히 소식에 의해 ‘和陶詩’가 창작된 이래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수많은 문인들이 도연명의 시에 和作²⁾하는 문풍을 낳았다. 이러한 ‘화도사’의 문학적 전통은 단순한 模擬를

1) 남윤수, 『韓國의 「和陶辭」 研究』, 역락, 2004; 김보경, 「소식과 도연명의 「만남」 - 소식에 의한 도연명 전범화를 중심으로」, 『중국문학』 62, 한국중국어문화회, 2010; 노우정, 「주희의 도연명 시가 수용과 인격 비평 - 주희에 의한 도연명의 충신으로서의 전범화」, 『온지논총』 35, 온지학회, 2013 참조.

2) ‘和作’은 ‘和韻’과 동일한 개념을 지닌 용어가 아니다. ‘和韻’은 原詩의 韻字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순서까지 지키는 ‘次韻’, 다른 운자를 사용하되 같은 韻目에 속

넘어서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바, 한국한문학사의 지형도에서 중요한 위상을 지니면서 조선 문단을 이해하는 문화적 코드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화도시’에 관해서는 일찍부터 학계의 관심을 받으면서 적지 않은 연구 결과물이 생산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연구자들의 관심과 연구 성과에 있어 만족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

우리나라의 ‘화도시’에 대한 그간의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和陶辭」 연구를 위시로 하여 개별 작가의 화도시 창작에 대한 미시적 연구³⁾와 함께 비교문학적 관점에서의 연구⁴⁾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화도시’에 대한 종합적이고 통시성을 띠는 거시적 연구⁵⁾가 시도되고 있다. 개별 작가의 연구와 비교문학적 연구는 ‘화도시’의 창작 동기와 和作 양상 및 비교 작가 간에 나타난 세계관의 동이점 등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한 글자를 사용하는 ‘依韻’, 원시의 운자를 사용하되 순서는 지키지 않는 ‘用韻’으로 구분된다. 또한 화운시와 다르게 원시의 운자를 재사용하지 않지만 원시의 詩意에 화답하여 짓는 경우도 있다.(徐師曾 著, 羅根澤 校點, 『文體明辨序說』, 北京:人民文學出版社, 1998, pp.109-110 참조) 이에 입각하여 본고는 ‘和韻和意’와 ‘和韻不和意’ 및 ‘和意不和韻’을 통합하는 개념으로 ‘和作’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 3) 이가원, 「퇴계선생의 『和陶集飲酒』 二十首 初探」, 『퇴계학보』 52, 퇴계학연구원, 1986; 김윤혜, 「매월당의 ‘화도시’에 대한 연구」, 『한문교육연구』 4, 한국한문교육학회, 1990; 김주백, 「상촌 신희의 화도시 연구」, 『한문학논집』 10, 근역한문학회, 1992; 안말숙, 「김수항의 화도시 고찰」, 『수련어문논집』 25, 부산여대 수련어문학회, 1999; 강지희, 「매월당의 「和淵明飲酒二十首」 연구」, 『민족문학사연구』 29, 민족문학사학회, 2005; 이영숙, 「회봉 하겸진의 화도시 연구」, 『남도문화연구』 18, 2010; 이영숙, 「극원 이만수의 화도시 연구」, 『동양한문학연구』 35, 동양한문학회, 2012.
- 4) 강지희, 「퇴계의 「和陶集飲酒二十首」에 나타난 도연명 수용 양상 - 소동파, 매월당과의 비교문학적 관점에서」, 『동방한문학』 44, 동방한문학회, 2010; 경숙인, 「상촌 신희의 화도시 중 「飲酒」 20수 연구 - 도연명의 「飲酒」, 소식의 「和陶飲酒詩」와의 비교문학적 관점에서」, 『우리문학연구』 35, 우리문학회, 2012; 이영숙, 「회봉 하겸진의 화도시와 동파 소식의 화도시 비교연구」, 『남명학연구』 39,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2013.
- 5) 김보경, 「한국 ‘화도시’ 연구 序說」, 『중국문학』 66, 한국중국어문학학회, 2011; 임준철, 「조선 전기 화도시의 轉變」, 『한국한문학연구』 60, 한국한문학회, 2015.

이루어졌지만, 한국한문학사의 지형도 안에서 개별 작가의 화도시가 지닌 의미까지 적확히 구명했다고 평가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또한 조선시대 ‘화도시’의 창작 概況에 대한 소개가 소략하다는 점과 ‘화도시’에서 발견되는 도연명 시에 대한 전범 인식의 轉變 양상이 조선 전기로 연구가 국한되어 있다는 점 등은,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가 유의미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실정은 ‘화도시’ 연구 자체에 난점이 존재하는 한편, 기존 연구가 채택한 분석 방법과 대상으로 삼은 작품의 범위 상에 문제점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먼저 전자의 경우로는 ‘화도시’를 창작한 작가와 그 작품의 수량이 방대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한국고전번역원에서 간행한 『한국문집총간』에 수록되지 않은 문집까지 감안한다면, 조선시대 ‘화도시’의 창작 규모를 온전히 파악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후자의 경우가 지닌 문제점으로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기존 연구가 채택한 분석 방법은 대부분 작품의 창작배경·제재·주제(현실인식·세계관)를 고찰하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분석 방법은 개별 작가의 창작세계와 의식세계를 확장하는 한 축이 될 수는 있지만, 각 작품이 당대에 지녔던 문학사적 의미를 설명하기에는 취약한 측면이 있다. 작품에 투영된 세계관에는 그 시대의 문학성을 담보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작품의 제재·주제와 함께 수사적인 특징까지도 고구해야만 작품이 지닌 문학사적 의미가 드러날 것이다.

둘째, 기존 연구가 대상으로 삼은 작품을 살펴보면, 「飲酒」와 「歸園田居」 등의 五言詩에 대한 화도시가 주축을 이루면서 四言詩에 대한 화도시는 단편적인 언급에 그치거나 부수적인 것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그 하나는 중국 학계에서 도연명의 四言詩를 五言詩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술적 성취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하였다는 점이다.⁶⁾ 또 하나는 ‘和韻’이라는 창작 방식이 몰개성과 모방의 혐의를 지

닌다는 점이다. 五言詩의 형성과 전개 과정에 있어 도연명의 五言詩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였다는 평가로 인해 이를 和作한 화도시는 형식의 답습이나 모방이라는 비판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그러나 도연명의 四言詩는 이미 『詩經』에 의해 그 형식이 정착된 바, 이것은 도연명의 四言詩가 『시경』의 전통을 계승한 측면을 소홀히 취급하고 도연명의 四言詩와 이에 대한 화도시를 단순한 ‘擬古’로 치부하는 경향과 연결되면서 ‘화도시’ 연구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셋째는 둘째와 연관되는 것으로, 도연명의 四言詩에 대한 화도시 중에는 農巖 金昌協의 경우처럼 도연명의 시가 지닌 주제의식에 부합하여 和作하지만 和韻하는 방식으로 창작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데, 이를 기존 연구에서 간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농암의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조선조의 ‘和陶四言詩’가 역사적 轉變 과정을 거쳤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여기에는 ‘擬古’와 ‘反擬古’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개별 작가의 ‘화도시언시’가 특정한 시기의 문학성을 지닐 가능성도 내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조선조의 ‘화도시언시’가 지닌 문학사적 의미가 17세기의 ‘복고주의’와 18세기의 ‘개성주의’ 및 19세기 전반기의 ‘복고주의의 부활 내지 상고주의로의 회귀’ 등의 문풍과 연계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진단한 기존 연구의 한계와 문제점을 주목한다면, 도연명의 四言詩를 和作한 조선조 문인의 작품은 한국 ‘화도시’의 역사적 전개 속에서 별도로 고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고는 도연명의 四言詩를 和作한 조선조 문인의 작품을 ‘和陶四言詩’로 명명하고 도연명 四言詩의 수용 양상을 구명하는 한편, 그 수용의 내부적 발전 정도와 문학사적 의미를 아울러 탐색하고자 한다.

6) 최우석, 「도연명 사언시의 특색과 그 지위」, 『중국학논총』 20, 한국중국문화학회, 2005, pp.163-164 참조.

Ⅱ. 陶淵明 四言詩의 형식과 수사적 특징⁷⁾

1. 詩題와 형식상의 특징

『시경』의 대표적 형식인 사언시는 先秦이후로도 南朝까지 시가에서 ‘正體’의 지위를 유지하였다.⁸⁾ 『시경』의 詩教 정신을 계승한 漢代의 사언시 이래로, 建安 시기에 민간악부를 채용한 曹操의 사언시와 正始 시기에 淸峻의 풍격을 개척한 嵇康의 사언시가 『시경』의 구속에서 벗어나긴 하였지만 西晉代까지 사언시는 詩教의 계승과 유가사상의 선양이 주된 내용을 이루었다. 그러나 東晉代에 이르러 사언시는 노장사상에 기초한 玄學의 내용이 대세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시기에 도연명은 玄學의 시풍에서 벗어나 『시경』의 詩教 정신을 계승하는 한편, 平淡한 풍격의 사언시를 창작하였다.⁹⁾

도연명의 사언시는 그의 나이 27세인 391년부터 61세인 425년까지 지어진 것으로,¹⁰⁾ 총 9題 44章의 시가 『陶淵明集』의 권1에 수록되어 있다.¹¹⁾

-
- 7) 도연명의 사언시가 지닌 형식과 수사적 특징은 선행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어졌다. 본고에서는 차주환의 『韓譯 陶淵明全集』(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노경희의 「도연명 시어의 연원 - 사언시를 중심으로」(『인문학지』 27, 충북대 인문학연구소, 2003), 최우석의 「도연명 사언시의 특색과 그 지위」(『중국학논총』 20, 한국중국문학학회, 2005), 박혜정의 「도연명 사언시 연원 연구」(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를 바탕으로 하여 관련 내용을 요약정리하였고, 아울러 필자가 분석하여 추출한 내용을 첨가하였다.
- 8) 劉協, 『文心雕龍』 권2, 「明詩」, “四言正體, 則雅潤爲本. 五言流調, 則淸麗居宗.” (劉協 著, 范文瀾 注, 『文心雕龍注(上)』,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6, p.67) 최우석, 「古代 四言詩와 唐代 律詩 속의 ‘雅正’ 審美觀」, 『중국어문논총』 26, 중국어문연구회, 2004, pp.139-140에서 재인용함.
- 9) 이상 도연명 이전의 사언시 전변 과정은 최우석, 「도연명 사언시의 특색과 그 지위」, 『중국학논총』 20, 한국중국문학학회, 2005, pp.164-167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 10) 도연명의 생졸연도와 作詩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의 설이 분분한데, 본고에서는 차주환이 『韓譯 陶淵明全集』(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pp.319-329)에서 정리한 年譜를 따르기로 한다.

아래에 도연명 사언시의 詩題와 형식 및 창작 배경을 도표로 정리한다.

<표 1> 도연명 사언시의 詩題와 형식 및 창작 배경

『陶淵明集』 권1 편차	詩題	형식	창작 배경	
			시의 大義(自序 유무)	作詩 시기(차주환의 『韓譯 陶淵明全集』에 의함)
1	停雲	8句 4章	벗에 대한 그리움(自序 有)	40세(404년)
2	時運	8句 4章	늦봄에 노니는 감회(自序 有)	40세(404년)
3	榮木	8句 4章	늙어가는 것에 대한 염려(自序 有)	40세(404년)
4	贈長沙公	8句 4章	조상 찬미와 친족유대 기원(自序 有)	54세(418년)
5	酬丁柴桑	6句 1章 8句 1章	지방관 頌美와 유대감 표출(自序 無)	54세(418년)
6	答龐參軍	8句 6章	각별한 교유의 정감 표출(自序 有)	61세(425년)
7	勸農	8句 6章	농경의 예찬과 권농(自序 無)	39세(403년)
8	命子	8句 10章	조상 찬미와 자식 훈계(自序 無)	27세(391년)
9	歸鳥	8句 4章	歸隱에 대한 감회(自序 無)	42세(406년)

위의 도표에 나타난 도연명 사언시의 형식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연명의 사언시 중에서 「停雲」·「時運」·「榮木」·「歸鳥」는 제1句의 4言 중에서 제목을 취하였는데, 이러한 특징은 『시경』의 題名 방식과 일치하는 것이다.

둘째, 도연명의 사언시는 8구 4장 형식이 5題, 8구 6장 형식이 2題, 8구 10장 형식이 1題, 6구 1장과 8구 1장이 결합된 형식이 1題이다. 이러한 형식이 지닌 공통점은 『시경』의 시처럼 章과 章이 반복되는 聯章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고, 이 또한 도연명의 사언시가 『시경』의 양식을 계승한 요인의 하나로 작용한다. 특기할 점은 도연명 사언시의 과반수를

11) 본고에서 활용한 『陶淵明集』은 다음의 3가지 문헌을 토대로 하였다. 袁行霈 撰, 『陶淵明集箋注』, 北京: 中華書局, 2003; 北京大學北京師範大學中文系·北京大學中文系文學史教研室 編, 『陶淵明資料彙編(上·下)』, 北京: 中華書局, 1962(2005 重印); 차주환, 『韓譯 陶淵明全集』,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초판 제2쇄).

차지하는 8구 4장의 형식이 『시경』의 風이나 頌의 시보다는 雅의 시에서 사용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도연명의 사언시는 형식상 『시경』 중에서 민요풍인 國風보다는 장중한 雅의 형식을 선호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¹²⁾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셋째, 「停雲」·「時運」·「榮木」·「贈長沙公」·「答龐參軍」에는 自序가 병기되어 있는데, 이러한 특징은 『시경』의 「毛詩序」 체제를 따른 것이다. 즉 自序를 통해 시의 大義를 요약한 후, 作詩의 배경과 詩意를 서술하고 있다. 특히 自序에서 作詩의 배경과 詩意를 서술한 부분은 시의 형식과 같은 四言句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자체를 精美한 無韻短詩¹³⁾로 평가하기도 한다.

2. 詩語와 句型의 수사적 특징

도연명의 사언시는 詩題와 詩型 및 章法 등 형식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詩語와 句型을 운용하는 수사적 측면에서도 『시경』을 전범으로 삼고 있다. 먼저 시어의 운용상 특징을 살펴본다.

첫째, 『시경』의 “關關雎鳩”처럼 도연명의 사언시도 첫 구가 疊字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停雲」 제1장의 “靄靄停雲”과 제4장의 “翩翩飛鳥”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疊字의 운용은 첫 구에서뿐만 아니라 전체에 걸쳐 반복적으로 구사되었다.

둘째, 도연명의 사언시는 『시경』의 시구를 다수 차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豈無他人”(「停雲」), “人亦有言”(「停雲」·「時運」·「命子」), “我之懷矣”(「榮木」), “有客有客”(「酬丁柴桑」), “衡門之下”·“我有旨酒”(「答龐參軍」), “厥初生民”(「勸農」), “日居月諸”·“夙興夜寐”(「命子」) 등은 모두 『시경』에서 유래하는 시구이다.

다음으로 句型의 운용상 특징을 살펴본다.

12) 노경희, 앞의 논문, pp.103-104 참조.

13) 차주환, 앞의 책, p.372 참조.

첫째, 『시경』의 대표적인 編章 방식의 하나가 동일구를 반복 사용하는 疊句인데, 도연명의 사언시에도 빈번하게 구사되었다. 총 4장인 「歸鳥」는 각 장이 “翼翼歸鳥”의 동일구로 시작하고, 「榮木」 제1장의 제1~2구인 “采采榮木, 結根于茲.”는 제2장의 제1~2구에서 “采采榮木, 于茲托根.”으로 약간의 변화를 보이지만 역시 疊句를 구사한 것이다. 더 나아가 「停雲」 제1장의 제1~4구인 “靄靄停雲, 濛濛時雨. 八表同昏, 平路伊阻.”는 제2장의 제1~4구에서 “停雲靄靄, 時雨濛濛. 八表同昏, 平陸成江.”의 형태로 변화하기도 한다.

둘째, 도연명의 사언시는 『시경』 특유의 常用句型을 채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載~載~’, ‘乃~乃~’, ‘爰~爰~’, ‘願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자면, 도연명의 사언시는 형식과 수사적 측면에서 의식적으로 『시경』의 양식을 계승하고 있다. 따라서 『시경』에 연원을 둔 도연명의 사언시는 復古 내지 尙古의인 성향을 지녔다고 평가할 수 있다.¹⁴⁾

Ⅲ. 조선조 ‘和陶四言詩’의 轉變과 양상

1. 작품별 형식과 창작 배경 및 압운 양상

고려시대의 ‘和陶詩’는 『東文選』에 수록된 李仁老(1152~1220)의 「和歸去來辭」 외에는 아직까지 학계에 보고된 사례가 없다.¹⁵⁾ 따라서 본고의

14) 日人學者 大矢根文次郎은 도연명의 사언시가 질량면에서 당시의 타시인들에 비해 뛰어난 원인을 도연명 문학세계의 전반적인 復古, 尙古의인 측면에 있다고 추정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노경희, 앞의 논문, p.102 참조.

15) 이인로의 「화귀거래사」 외에 權近(1352~1409)의 「擬古和陶(4수)」를 고려시대의 ‘화도시’로 볼 수도 있지만, 창작 시기가 미상이라 왕조의 명확한 구별은 어렵다. 權近의 「擬古和陶」는 도연명의 오언시 「擬古(0수)」를 和作한 것으로, 도연명 원시의 운자를 재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영숙의 「극원 이만수의 「화도시」 연구」(『동양학문학회』 35, 동양한문학회, 2012, pp.157-158) 참조.

연구 범위도 조선조로 집중하였다.¹⁶⁾ 조선조 문인의 ‘和陶四言詩’ 작품 추출은 한국고전번역원에서 간행한 『한국문집총간』을 중심으로 하고, 간행되지 않은 개인문집의 경우에는 추출상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 필자가 개인적으로 확보한 자료에 국한하였다.

추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도연명의 사언시를 和作한 조선조 문인은 金時習(1435~1493), 申欽(1566~1628), 宋國澤(1597~1659), 兪榮(1607~1664), 宋時烈(1607~1689), 金壽恒(1629~1689), 李世龜(1646~1700), 金昌協(1651~1708), 趙裕壽(1663~1741), 趙琮鎮(1767~1845), 李晩秀(1752~1820) 등이다.¹⁷⁾ 우선 도연명 사언시와 조선조 ‘和陶四言詩’의 詩題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도연명 四言詩와 조선조 ‘和陶四言詩’의 詩題 비교

작가명	詩題								
도연명	停雲	時運	榮木	贈長沙公	酬丁柴桑	答龐參軍	勸農	命子	歸鳥
김시습	和靖節停雲	和靖節時運				和靖節答龐(參軍)	和靖節勸農		
신흠	停雲	時運				答龐參軍	勸農		
송국택						和陶四言寄松溪道座(六首)			

16) ‘화도시’ 창작의 문학적 전통은 조선조로 국한되지 않으며, ‘화도시언시’ 또한 일제강점기까지 이어져 河謙鎮(1870~1945)에 의해 4題 19章이 창작되었다. 그러나 본고의 연구 범위가 조선조에 집중된 관계로, 하경진의 화도시언시는 본고의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하경진의 화도시에 대해서는 이영숙의 「회봉 하경진의 화도시와 동파 소식의 화도시 비교연구」(『남명학연구』 39,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2013) 참조.

17) 본고가 연구 대상으로 삼은 조선조 문인의 시문집은 다음과 같다. 金時習, 『梅月堂集』(한국문집총간 13집); 申欽, 『象村稿』(한국문집총간 71~72집); 宋國澤, 『四友堂集』(한국문집총간 속27집); 兪榮, 『市南集』(한국문집총간 117집); 宋時烈, 『宋子大全』(한국문집총간 108~116집); 金壽恒, 『文谷集』(한국문집총간 133집); 李世龜, 『養窩集』(한국문집총간 속48집); 金昌協, 『農巖集』(한국문집총간 161~162집); 趙裕壽, 『后溪集』(한국문집총간 속55집); 趙琮鎮, 『東海公遺稿』(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李晩秀, 『屐園遺稿』(한국문집총간 268집)

유계	次陶停雲 寄尹吉甫 (宣學)	次陶時運	次陶園木		次陶贈丁 柴桑韻 贈尹景任 (衡聖)	宋英甫(時 烈別 不勝 眷言之情 次陶答龐參 軍韻 却寄 求和			
송시열	次文谷和 陶四章					次市南俞榮 和陶六章			
김수항	同雲四章 次停雲韻	次時運韻					次命子詩韻 書與協行 兼示諸兒	鳴雁四章 次歸鳥韻	
이세구	和靖節 停雲								
김창협	山居無事 偶讀陶詩停雲以下三篇 撫時循事 情致適同 輒爾和成 只取義近 不復次韻 (右擬停雲, 右擬時運, 右擬榮木)								
조유수	和停雲四 首	和陶靖節 時運四首 韻					和 勸 農 六首		
조종진	停雲	時運	榮木	贈長沙公	酬丁柴桑	答龐參軍	勸農		
이만수	風雨(和 停雲)	於皇(和 時運)	巖巖(和 榮木)	宿昔(和贈 長沙公)	哲人(和酬 丁柴桑)	有女(和答 龐參軍)	今夕(和 勸農)	奕葉(和命 子)	有履(和 歸鳥)

조선조 ‘화도사언시’ 중에서 송국택과 이세구의 경우는 각각 도연명의 「答龐參軍」(6章)과 「停雲」(4章)에 국한하여 화운한 것이다. 도연명의 사언시 9題 중에서 1題에만 화운한 것이기에 작품의 수량을 고려하여 본고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송시열의 작품도 도연명의 사언시에 직접 화운한 것이 아니라 유계와 김수항의 화도사언시에 다시 화운한 경우이기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송국택과 이세구 및 송시열을 제외한 조선조 ‘화도사언시’의 작품별 형식과 창작 배경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조선조 ‘和陶四言詩’의 작품별 형식과 창작 배경

작가명	篇名	編次	형식			창작 배경	
			詩題	詩型	自序유무	창작 시기	신분
김시습	和陶	2	和靖節停雲	8句 4章	유(四言句)	1471년 (38세) ~	서울 城東
		3	和靖節時運	8句 4章	유(四言句)		
		4	和靖節勸農	8句 6章	유	1481년 (47세) 추정	수락산 幽居 ¹⁸⁾
		5	和靖節答龐(參軍)	8句 6章	유		
신흠	和陶詩 四言	1	停雲	8句 4章	和陶詩序	1617년 (52세)	춘천 유배
		2	時運	8句 4章			
		3	答龐參軍	8句 6章			
		4	勸農	8句 6章			
유계	和陶詩 二十章	1	次陶停雲 寄尹吉甫(宣舉)	8句 4章	무	1654년 (48세)	解配 후 부여 임천 幽居
		2	次陶時運 彼以樂春我以悲秋	8句 4章	무		
		3	次陶園木	8句 4章	무		
		4	次陶贈丁柴桑韻 贈尹景任(衡聖)	8句 2章	무		
		5	宋英甫(時烈)見枉 既別 不勝眷言之情 次陶答龐參軍韻 却寄求和	8句 6章	무		
김수항	和陶詩 五十首	11	次命子詩韻 書與協行 兼示諸兒	8句 10章	무	1675년 (47세) ~	전남 영암
		12	同雲四章 次停雲韻	8句 4章	무		
		14	次時運韻	8句 4章	무	1676년 (48세)	유배
		15	鳴雁四章 次歸鳥韻	8句 4章	무		
김창협	·	·	부기 擬停雲	8句 4章	詩題가 序文역할	1680년 (30세) 추정	부친 유배중 山居
		·	부기 擬時運	8句 4章			
		·	부기 擬榮木	8句 4章			
조유수	·	·	和陶靖節時運四首韻	8句 4章	무	1734년 (72세) 추정	致仕 후 散人
		·	和勸農六首	8句 6章	무		
		·	和停雲四首	8句 4章	무		
조종진	和靖節集	1	停雲	8句 4章	무	1808년 (42세)	대과 급제 후 休官 退居
		2	時運	8句 4章	무		
		3	榮木	8句 4章	무		
		4	贈長沙公	8句 4章	무		
		5	酬丁柴桑	6句 1章 8句 1章	무		
		6	答龐參軍	8句 6章	무		
		7	勸農	8句 6章	무		

이만수	和陶集	1	風雨(부기 和停雲)	8句 4章	유	1812년 (61세)	경주 유배
		2	於皇(부기 和時運)	8句 4章	유		
		3	巖巖(부기 和榮木)	8句 4章	유		
		4	宿昔(부기 和贈長沙公)	8句 4章	유		
		5	哲人(부기 和酬丁柴桑)	8句 2章	유		
		6	有奴부기 和答龐參軍)	8句 6章	유		
		7	今夕(부기 和勸農)	8句 6章	유		
		8	奕葉(부기 和命子)	8句 10章	유		
		9	有履(부기 和歸鳥)	8句 4章	유		

위의 도표에 나타난 작품별 편명과 형식 및 창작배경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품군의 篇名과 編次에 있어 차이가 발생한다. 김시습은 도연명의 사언시 중에서 4題 20章과 오언시에도 화운하여 ‘和陶’로 명명하고, 편차상 첫 번째로 「和淵明飲酒詩(二十首)」를 배치한 후에 사언시 4題를 이어서 배치하였다. 신희은 도연명의 사언시 중에서 4題 20章과 오언시 및 「歸去來辭」에 화운하여 ‘和陶詩’로 명명하고, 편차상 각각을 ‘四言’, ‘五言’, ‘辭’로 구분하였다. 유계는 도연명의 사언시 중에서 4題 20章만 화운하여 ‘和陶詩(二十章)’로 명명하였다. 김수항은 도연명의 사언시 중에서 4題 22章과 오언시에 화운하여 ‘和陶詩(五十首)’로 명명하고, 편차상 사언시와 오언시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섞었다. 조종진은 도연명의 사언시 중에서 7題 30章만 화운하여 ‘和靖節集’으로 명명하였다. 이만수는 도연명의 사언시와 오언시 전체에 화운하여 ‘和陶集’으로 명명하고, 편차상 사언시를 맨 앞에 배치하였다. 이만수는 도연명의 「歸去來辭」를 차운한 「鹿車亭賦(次歸去來辭韻)」도 지었으니, 현재로서는 조선조 문인 중에서 유일하게 도연명의 시 전체를 화운하였다는 문학사적 위상을 지닌다.

둘째, 작품별 詩題에 있어서 김시습·신희·조유수·조종진의 경우는 도연명의 原題를 활용하는 한편, 유계·김수항·김창협·이만수의 경우는 자신만

18) 김시습 ‘和陶詩’의 창작 배경에 대해서는 김윤희, 앞의 논문, pp.173-174 참조.

의 題名을 붙이면서 도연명의 原題는 詩題 사이에 넣거나 시의 말미에 부기하였다. 도연명의 原題를 활용한 경우는 原詩의 주제의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경향이 강하겠지만, 자신만의 題名을 붙인 경우는 주제의식을 내면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만수의 경우는 자신만의 題名을 붙이면서도 제1章의 제1~2구에서 2字를 취해 명명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시경』과 도연명 사언시의 題名 방식과 일치하는 것으로, 도연명 사언시에 대한 수용과 변주의 한 양상으로 지적할 수 있다.

셋째, 작품별 詩型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도연명 사언시의 형식을 준수하고 있지만, 유계와 이만수의 경우에는 특기할 점이 있다. 도연명의 「酬丁柴桑」은 6句 1章과 8句 1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계와 이만수는 도연명의 6句 사언시에 2句를 추가하여 8句 2章으로 변환하였다. 도연명의 「酬丁柴桑」 중 6句 1章에 대해서는 佚句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는데,¹⁹⁾ 이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작품별 自序 유무와 그 양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시습은 4題에 각각의 自序를 병기하였는데, 그 중에 2題의 自序²⁰⁾는 四言句로 구성되어 있어 도연명 사언시의 체제를 일부분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신흠은 도연명의 사언시와 오언시 및 「歸去來辭」에 화운하였기에 전체를 아우르는 서문인 「和陶詩序」를 별도로 지었다. 김창협은 自序가 없지만 四言句가 포함된 문장 형식의 詩題²¹⁾에 창작 배경과 방식을 서술하고 있어 서문의 역할을 겸하고 있다. 이만수는 사언시 9題 모두에 짧은 문장의 自序²²⁾를 병기하였는데, 도연명의 오언시를 화운한 작품에 自序를 병기

19) 노경희, 앞의 논문, p.103 참조.

20) 金時習, 『梅月堂詩集』 권8, 『和陶』, 「和靖節停雲」, “思舊友也。雲林異途, 欲會無由。[옛 벗을 생각한 것이다. 구름 낀 숲에서 길을 달리하니, 만나고자 하여도 방법이 없다.]”; 「和靖節時運」, “春遊也。杖履行吟, 勝景難既。[봄에 노닌 것이다. 지팡이와 짚신으로 거닐며 읊는데, 빼어난 경치는 말로 다하기 어렵다.]” 참조.

21) 金昌協, 『農巖集』 권1, 「山居無事 偶讀陶詩停雲以下三篇 撫時循事 情致適同 輒爾和成 只取義近 不復次韻」

22) 李晚秀, 『屐園遺稿』 권13, 『和陶集』, 「風雨」, “風雨, 思伯氏也.”; 「於皇」, “於皇,

하지 않은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도연명의 사언시가 형식적인 측면에서 『시경』의 양식을 계승한 것에 대해 인지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그는 『和陶集』 전체를 아우르는 서문인 「和陶集序」²³⁾를 지었는데, 한 구절을 제외하고 모든 문장을 四言句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양상 또한 도연명 사언시의 체제를 수용하면서 변주한 것으로, 조선조의 ‘화도사언시’가 역사적 轉變 과정을 거쳤음을 의미한다.

다섯째, 개인별 창작 시기는 김창협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중년 이후가 된다. 또한 조유수를 제외하면 창작 시기에 작가가 처한 상황은 幽居·유배·山居·休官 등으로 심적인 고뇌를 겪는 시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양상은 ‘화도사언시’가 모방의 혐의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和作되는 배경과 밀접한 연관을 맺으니, 바로 도연명의 사언시가 言志와 述懷에 있어 특장을 지니기 때문이다.²⁴⁾

작품별 창작 배경에 있어 주목할 점은 조선조 ‘화도사언시’의 창작 연대가 17세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국한문학사상 17세기는 古詩 창

感念恩遇也.”; 「巖巖」, “巖巖, 勉學業也.”; 「宿昔」, “宿昔, 歎志道未就也.”; 「哲人」, “哲人, 設言自慰也.”; 「有女」, “有女, 演春歌也.”; 「今夕」, “今夕, 燈夕也.”, 「奕葉」, “奕葉, 陳世德也.”; 「有屐」, “有屐, 榮君賜也.”

23) 李晩秀, 『屐園遺稿』 권13, 『和陶集』, 「和陶集序」, “壬申首春, 南遷于慶. 夏五下旬, 蒙恩北還. 用惠州故事, 聊以遣懷, 爲和陶集.[임신(1812)년 초봄에 남쪽으로 경주에 유배되었다. 여름 5월 하순에 성을 입고 북쪽으로 돌아왔다. 혜주의 고사를 인용하여 그저 회포를 풀고자 화도집을 지었다.]” 참조.

24) 사언시 창작이 모방의 혐의를 받는 점과 사언시가 言志와 述懷에 특장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丁若鏞이 유배 중에 아들에게 보낸 서신의 다음 언급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與猶堂全書』, 第一集 詩文集 第二十一卷, 「示兩兒」, “余近思之, 竊志悵懷, 莫如四言. 後來詩家嫌有摸擬之累, 遂廢四言. 然如吾今日處地, 正好作四言. 汝亦深究風雅之本, 下採陶謝之英, 須作四言也. [내가 근래에 생각해 보니, 뜻을 읊고 생각을 읊는 데에는 사언시만한 것이 없다. 후세에 시인들이 모의하는 누가 있음을 혐의하여 마침내 사언시를 짓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나의 지금 처지에서는 사언시 짓기에 매우 좋다. 너희들도 『시경』의 근본을 깊이 연구하고, 도연명과 사령운의 정화를 모아서 모름지기 사언시를 지어라.]” 다산의 사언시 인식에 대해서는 전경원의 「다산 정약용의 사언시와 시경론 및 시인식의 상관성」(『우리어문연구』 28, 우리어문학회, 2007) 참조.

작의 성행으로 인해²⁵⁾ ‘擬古’와 ‘反擬古’ 또는 ‘古’와 ‘今’의 인식에 대한 논쟁이 존재했다. 『시경』의 양식을 계승한 도연명의 사언시가 복고 내지 상고적 성향을 지닌 점을 감안하면, ‘화도사언사’의 창작 이면에는 古風을 추구하고자 하는 문학적 지향이 내포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문인별 문학성의 차이로 인해 古風 추구에 대한 인식에도 편차가 있을 것이다. 요컨대 조선조 ‘화도사언사’가 지닌 문학사적 의미가 17세기의 ‘복고주의’와 18세기의 ‘개성주의’ 및 19세기 전반기의 ‘복고주의의 부활 내지 상고주의로의 회귀’ 등의 문풍과 연계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 일단이 이미 앞서 거론한 작품별 詩題와 自序가 지닌 특징에서 보였지만, 확실한 입증을 위해서는 압운과 修辭 및 詩意 측면에서 좀 더 면밀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도연명 사언사와 조선조 ‘화도사언사’의 압운 양상을 도표로 정리하여 논지를 이어간다.

<표 4> 도연명 사언사와 조선조 ‘和陶四言詩’의 압운 양상 비교

도연명 四言詩		조선조 ‘和陶四言詩’							
詩題	押韻字	김시습	신홍	김수항	조유수	조종진	이만수	유계	김창협
停雲	雨阻撫竹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木淑熟屬
	濛江窓從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韋輶列日
	榮情征生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陂斯詩時
	柯和多何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院遠展近
時運	朝郊霄苗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服羈鹿陸
	濯矚足樂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中風豐融
	沂歸揮追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映泳競詠
	廬如壺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返偃淺遠
榮木	茲之時而					좌동	좌동	좌동	離披時思
	根存門敦					좌동	좌동	좌동	森陰音心
	陋舊富疾					좌동	좌동	矣矣富疾	返玩倦踐
	墜畏驥至					좌동	좌동	諸諸	邁詣廢軌

25) 17세기 고시론과 창작양상에 대해서는 장유승, 「17세기 고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참조.

贈長沙公	疎初徂 踏					좌동	좌동		
	堂璋霜 光					좌동	좌동		
	同東江 通					좌동	좌동		
	言山然 先					좌동	좌동		
酬丁柴桑	止里始(6句)					좌동	止里 ^歸 始	止里始 ^爾	
	游由憂 休遊					由憂休遊	由憂休遊	由憂休遊	
答龐參軍	書娛居 廬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珍親人 隣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夜之詩 思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分欣雲 聞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鳴零京 寧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風中 ^沖 終 躬	風中 ^沖 終躬	風中 ^沖 終躬			風中 ^沖 終躬	風中 ^沖 終躬	風中 ^沖 終躬	
勸農	民 ^人 真 因人	民 ^真 因人	民 ^真 因人			民 ^真 因人	人 ^真 因人	民 ^真 因人	
	稷殖穡 食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陸穆逐 宿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久耦畝 手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匱冀至 愧	匱冀 ^喜 愧	匱冀至愧			匱冀至愧	匱冀至愧	匱冀至愧	
	鄙履軌 美	좌동	좌동			좌동	鄙履軌 ^矣	鄙履軌美	
命子	唐光商 昌			좌동			좌동		
	周丘流 侯			좌동			周 ^邱 流侯		
	龍功封 蹤			좌동			좌동		
	柯羅窳 沙			좌동			좌동		
	德國忒 得			좌동			좌동		
	始里止 喜			좌동			좌동		
	及立急 泣			좌동			좌동		
	時思茲 而			좌동			좌동		
	火我可 假			좌동			火我可 ^假		
歸鳥	孩來才 哉			좌동			좌동		
	林岑心 陰			좌동			좌동		
	飛依歸 遺			좌동			좌동		
	徊棲諧 懷			좌동			좌동		
	條標交 勞			좌동			좌동		

위의 도표에 나타난 압운상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연명의 사언시는 판본에 따라 압운자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조선조 ‘화도사언시’도 작품별 압운자에 편차가 확인된다. 특히 조종진과 이만수의 경우는 마지막 운자를 原詩의 운자와 동일한 운목에 속한 글자로 전환하는 依韻의 압운 방식을 구사하고 있다. 마지막 구는 시상을 끝맺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운자를 바꾼다는 것은 의도적일 수가 있다.

둘째, 앞서 유계와 이만수가 도연명의 「酬丁柴桑」 중에서 6句로 된 사언시에 2句를 추가하여 8句로 전환한 특징을 거론하였는데, 이로 인해 압운에 있어서도 운자 1개가 추가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유계는 제6句에, 이만수는 제8句에 운자를 추가하였다.

셋째, 압운 운용에 있어서 가장 독특한 양상을 보이는 경우는 유계와 김창협이다. 특히 김창협의 경우는 압운자의 사용에 있어 도연명의 사언시와 현격히 차이를 알 수 있는데, 김창협이 詩題에서 밝힌 그대로 그의 작품은 화운시의 창작 방식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요컨대 도연명의 사언시가 지닌 詩意에 부합하여 和作하지만 和韻하는 방식으로 창작하지 않은 경우이다. 따라서 김창협의 화도사언시 창작 방식은 ‘和意不和韻’으로 규정할 수 있다. 아울러 다른 문인의 화도사언시는 작품별 내용 분석을 통해 ‘和韻和意’ 또는 ‘和韻不和意’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운자의 변주 양상은 주제의식의 내면화를 구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작품의 修辭와 詩意에 대한 고찰이 수반되어야 하는 관계로 다음 절에서 상론하기로 한다.

2. 修辭와 詩意의 유형별 수용 양상

본 절에서는 조선조 ‘화도사언시’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도연명의 사언시가 지닌 수사적 특징과 詩意가 조선조 ‘화도사언시’에 수용된 문학적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詩語와 句型の 수용과 변주 및 주제의식의 내면화 측면을 중심으로 模擬의 다양한 실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조선조 ‘화도사언시’가 외부의 영향을 넘어 내부적 발전의 면모를 지니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도연명의 사언시가 지닌 수사적 특징이 조선조

‘화도사언시’에 수용된 양상을 도표로 제시한다.

<표 5> 도연명 사언시의 수사적 특징에 대한 조선조 ‘和陶四言詩’의 수용 양상

도연명 사언시의 수사적 특징	疊字의 구사	『시경』의 시구 차용	疊句의 編章	『시경』의 常用句型 채택					
				載~載 ~	乃~乃 ~	爰~爰 ~	願言~	기타	
조 선 조	김시습	渺渺 離離 叨叨 熙熙 藹藹 于于 習習 關關 堂堂 短短 蕭蕭 申申 靄靄	念彼懷人 言念君子 日邁月征 傷如之何 習習和風 言旋言歸 關關好鳥	念彼懷人 言念君子	○	○	爰~	○	以~以~ 言~言~
	신홍	烈烈 噶噶 煌煌	日居月諸	烈烈其風 (惟風其烈) 噶噶其雨 (惟雨其濛)	○	×	×	○	瞻彼~ 薄言~ 匪~匪~ ~伊人
화 도 사 언 시	유계	泠泠 林林 泯泯 採採 肅肅 巖巖 鼎鼎 髮髮 欣欣 由由 悄悄 矯矯 溫溫 京京	以陰以雨 巖巖泰岳	~之~矣 ~則~矣 반복구사	○	○	×	×	以~以~ ~之~矣 ~伊人 之子~ 匪~匪~
수 용 양 상	김수항	煌煌 衮衮 青青 皎皎 烝烝 鬱鬱 濛濛 采采 發發 悄悄 遲遲 浩浩 嗷嗷 冥冥 滔滔	維桑與梓 日邁月征 同雲零雨 言念君子 零雨其濛	鬱鬱同雲 (同雲其鬱) 濛濛零雨 (零雨其濛) 嗷嗷鳴雁	×	×	爰~	×	宜~宜~ 於皇~ ~之~矣 ~哉~哉 ~伊人
	김장협	幽幽 鬱鬱 晏晏 丁丁 習習 翩翩 煒煒 青青 融融 離離 森森 亶亶	丁丁伐木 豈無他日 瞻望不見 習習谷風 人亦有言	我無良朋 瞻彼中林	○	×	×	×	瞻彼~ ~之~矣
	조유수	×	孰借南畝 其人雖遠 其宅伐柯	×	×	×	×	×	×

조종진	靄靄 鬱鬱 忡忡 如如 榮榮 鼎鼎 勉勉 赫赫 嗟嗟 采采 逢逢 萋萋 涓涓 津津 寂寂 嚶嚶 孜孜 悠悠 依依 穆穆 逐逐	傷如之何 聊復員樂 如圭如璋 寔錫之光 嗚肯來遊 鳴鳥嚶嚶 毋金爾音 豈無他人 淑慎其終 職思允殖 春雨有滄 先民有言 言非耄矣	×	○	×	爰~	○	瞻彼~ 如~如~ 云胡~ ~伊人
이만수	滔滔 鬱鬱 熙熙 郁郁 巖巖 茫茫 粒粒 札札 嬉嬉 轟轟 煜煜 耿耿 顯顯 混混 繩繩	鳶魚何知 三復鹿鳴 戀彼諸姬 七月之詩 以雨以陰	曰請成相	○	×	×	○	於皇~ 瞻望~ 以~以~

위의 도표를 통해 조선조 '화도사언시'의 역사적 轉變 과정을 엿볼 수 있다. 김시습의 경우는 도연명 사언시의 수사적 특징을 모두 지니고 있지만, 17세기 신희·유계·김수항·김창협은 수용에 편차가 있고, 18세기 조유수의 경우에는 수용의 정도가 희박해졌으며, 19세기 전반기 조종진과 이만수의 경우에는 다시 수용의 정도가 높아졌다. 김창협이 도연명 사언시의 詩題를 활용하지 않은 점과 화운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그의 작품은 조선조 '화도사언시'의 역사적 轉變 과정에서 전환점이 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김창협은 17세기에 대두한 복고주의 시풍에 비판을 가했고, 이로 인해 18세기는 개성주의가 주된 문풍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18세기 조유수의 화도사언시가 수사적 측면에서 도연명의 사언시를 수용한 정도가 낮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정조의 문체반정과 詩選集 편찬 사업에 영향을 받은 19세기 전반기 관료문인들은 복고주의 내지 상고주의를 표방하였는

데, 이것이 19세기 전반기 조종진과 이만수의 화도사언시에 도연명의 사언시를 수용한 정도가 다시 높아진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조선조 ‘화도사언시’는 도연명의 사언시가 지닌 제특성을 시대별 문풍과 작가별 문학적 지향으로 재구성하는 내면화의 轉變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내면화의 과정이 점진적으로 진행·변환된다고 볼 때, 조선조 ‘화도사언시’를 작가별 내면화가 노정하는 편차에 따라 유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는 앞 절에서 살핀 작품별 압운 양상과 본 절에서 고찰하는 修辭와 詩意의 수용 양상을 병합하여, 조선조 ‘화도사언시’의 창작 방식을 ‘和韻和意’ 유형, ‘和意不和韻’ 유형, ‘和韻和意’와 ‘和韻不和意’ 결합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문학적 수용과 변주의 실상을 고찰한다.

1) ‘和韻和意’ 유형

‘和韻和意’의 유형은 도연명 原詩의 운자를 재사용하고 詩意를 수용하여 내면화한 것으로, 조선조 ‘화도사언시’ 중에서 김시습·신흠유계·김수항·조유수·조종진의 작품이 해당된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화운한 도연명의 사언시는 「停雲」과 「時運」이다. 본고에서는 「停雲」과 이를 화운한 시들을 중심으로 하여 수사적 특징과 詩意의 수용 양상을 고찰하고, 기타 작품은 논지 전개에 대해 필요에 따라 거론하기로 한다.

도연명, 「停雲」

停雲思親友也。罇湛新醪，園列初榮。願言不從，歎息彌襟。[‘머문 구름’은 벗을 생각한 것이다. 술 단지에는 새로 담근 술이 고여 있고, 정원에는 막 핀 꽃들이 늘어섰다. 생각하지만 이를 길 없어, 탄식이 가슴에 가득하다.]

제1장

靄靄停雲，濛濛時雨	자욱하게 머문 구름, 부슬부슬 때맞춰 내리는 비.
八表同昏，平路伊阻	세상은 온통 어둡고, 평탄한 길은 막혔네.
靜寄東軒，春醪獨撫	조용히 동헌에 기대어, 봄 술을 홀로 마시네.
良朋悠邈，搔首延佇	벗은 아득히 멀리 있어, 머리 긁으며 오래 기다리네.

도연명의 「停雲」은 벗을 그리워한 시로, 8句 4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 장에서 거론했듯이 自序를 병기하고, 제1구의 4言 중에서 제목을 취하며, 제1구가 疊字로 시작되고, 제1~4구가 제2장에서 “停雲靄靄, 時雨濛濛. 八表同昏, 平陸成江.[머문 구름이 자욱하고, 때맞춰 비가 부슬부슬 내리네. 세상이 온통 어두우니, 평탄한 땅이 강이 되었네.]”로 변형되는 疊句의 편장 방식은 도연명의 사언시가 『시경』의 양식을 계승한 요소이다. 특히 自序의 “願言不從, 歎息彌襟.”은 제2장의 제7~8구에서 “願言懷人, 舟車靡從.[그리운 사람을 생각하지만, 배도 수레도 갈 길이 없네.]”로, 제4장의 제7~8구에서 “願言不從, 抱恨如何.[생각하나 이를 길 없으니, 품은 한을 어찌하리오.]”로 변용되었는데, ‘願言~’은 『시경』 특유의 常用句형이다.²⁶⁾

제3구에서 ‘八表同昏’이라고 했듯이, 도연명의 「停雲」은 전란으로 혼란한 시국²⁷⁾ 속에서 연락이 두절된 벗들을 그리워한 시이다. 따라서 소식이 惠州와 儋州로 유배된 시기에 본격적으로 ‘화도시’를 지었던²⁸⁾ 것처럼 조선조 문인들도 고독과 그리움이 유발되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停雲」을 和作하였다.

김시습, 「和靖節停雲」

思舊友也. 雲林異途, 欲會無由.[옛 벗을 그리워한 것이다. 구름 낀 숲에서 길을 달리하니, 만나고자 하여도 방법이 없다.]

26) 『시경·邶風』, 「終風」 제3장, “終風且曠, 不日有曠. 寤言不寐, 願言則嚏.”의 주자 집주, “願, 思也.[願은 생각함이다.]”; 『시경·周南』, 「葛覃」 제3장, “言告師氏, 言告言歸. 薄汗我私, 薄澣我衣, 害澣害否, 歸寧父母.”의 주자 집주, “言, 辭也.[言은 어조사이다.]”

27) 403년에 桓玄이 제위를 찬탈하여 晉 安帝를 潯陽으로 옮겼는데, 404년에 劉裕가 東晉의 관리와 장수들과 연합해 기병하여 환현과 격전하였고, 그해 6월에 환현은 피살되었다. 도연명은 401년 겨울에 모친이 사망하여 거상하느라 이때까지 柴桑의 집에 머물러 있었고, 404년 6월에 鎮軍將軍인 유유의 鎮軍參軍이 되었다. 404년은 도연명의 나이 40세로 이때에 지은 사언시가 「停雲」, 「時運」, 「榮木」이다.(이성호 역, 『도연명전집』, 문자향, 2001, pp.335-336 참조)

28) 김보경, 「소식과 도연명의 ‘만남’ - 소식에 의한 도연명 전범화를 중심으로」, 『중국문학』 62, 한국중국어문학회, 2010, pp.102-103 참조.

제1장

雲密西郊，黯然而雨 구름이 서쪽 교외에 뻑뻑하여, 어둑하니 비가 오려 하네.
 念彼懷人，關山路阻 저 그리운 사람을 생각하니, 관문과 산으로 길이 막혔네.
 琴書在床，以吟以撫 거문고와 책이 책상에 있어, 읊조리다가 어루만지네.
 渺渺遐思，勞神凝佇 아득하게 멀리 생각하며, 애타도록 우두커니 기다리네.

김시습의 自序는 도연명의 것을 그대로 수용하여 시의 大義를 요약한 후에 시의 형식과 같은 四言句로 作詩 배경과 詩意를 서술하고 있다. 도연명의 原詩와는 다르게 제1구를 疊字로 시작하지 않고 제7구에 ‘渺渺’로 疊字를 구사하였는데, 제3장에서는 “離離野草，或枯或榮”으로 제1구를 疊字로 시작하기도 하였다. 도연명의 사언시에서도 疊字의 운용은 첫 구에 서뿐만 아니라 전체에 걸쳐 반복적으로 구사된다.

도연명의 原詩와 차별되는 수사적 특징은 제3구의 “念彼懷人”과 제6구의 “以吟以撫”에 있다. 전자는 『시경』의 시구를 차용한 것이고²⁹⁾ 후자의 ‘以~以~’는 『시경』의 常用句型인데,³⁰⁾ 양자는 도연명의 사언시에서 구사되지 않은 것이다.

김시습은 1453년 癸酉靖難으로 인해 전국을 방랑한 끝에 경주의 금오산에 칩거하였다가, 37세에 成宗의 부름을 받고 새 조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경하였지만 변하지 않는 정치상황을 개탄하여 38세부터 10여년을 서울의 城東 수락산에서 幽居하며 화도시를 창작하였다.³¹⁾ 이러한 배경

29) 『시경·小雅』, 「小明」 제1:2:3장, “念彼共(恭)人，涕零如雨.”: “念彼共人，惻惻懷顧.” “念彼共人，興言出宿.”; 『시경·小雅』, 「白華」 제3장, “嘯歌傷懷，念彼碩人.”

30) ‘以~以~’ 구형은 『시경』의 風·雅·頌에 두루 사용되었는데, 대표적으로 몇 개만 예거하면 다음과 같다. 『시경·邶風』, 「柏舟」 제1장, “微我無酒，以敖以遊.”; 『시경·邶風』, 「谷風」 제1장, “習習谷風，以陰以雨.”; 『시경·小雅』, 「無羊」 제3장, “爾牧來思，以薪以蒸，以雝以雄.”; 『시경·小雅』, 「鼓鍾」 제4장, “以雅以南，以籥不僭.”; 『시경·小雅』, 「楚茨」 제1장, “以爲酒食，以享以祀，以妥以侑，以介景福.”; 『시경·大雅』, 「旱麓」 제4장, “以享以祀，以介景福.”; 『시경·周頌』, 「潛」 제1장, “以享以祀，以介景福.” 등

31) 김윤혜, 「매월당의 ‘화도시’에 대한 연구」, 『한문교육연구』 4, 한국한문교육학회, 1990, pp.179-180 참조.

을 감안하면 위 시의 自序에서 ‘思舊友也’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즉 도연명의 「停雲」이 지닌 詩意를 수용하되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변주한 것으로, 出仕한 옛 벗들과 현실정치에 타협하지 않는 자신 사이의 괴리감을 표출하였다고 볼 수 있다.

自序의 ‘雲林異途’와 시에서 제3~4구의 “念彼懷人，關山路阻.”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는데, 제3장의 제3~6구에서는 “貴賤死生，乃見交情。言念君子，日邁月征.[귀천과 생사에, 바로 사귀는 정 나타나지. 군자를 생각하며, 날로 나아가고 달로 나아가네.]”라고 하였다. 劉宋 정권에 출사하지 않은 도연명처럼 자신의 절의를 표명한 것이다. 따라서 김시습은 제5~6구에서 현실과의 괴리로 인한 고독감을 거문고와 책으로 상쇄시키고 있는데, 이 또한 도연명의 사언시에서 차용한 것이다. 도연명에게 있어 거문고와 책은 술과 함께 隱逸自適의 생활과 세속에 초연한 정신세계를 이어주는 매개체이다.³²⁾

신흙, 「停雲」, 제1장

烈烈其風，噎噎其雨	매섭게 바람이 몰려와, 음산하게 비가 내리네.
瞻彼同好，山河重阻	저 좋아하는 이를 보아도, 산과 강이 겹겹이 막았네.
我有絲桐，誰與共撫	나에게 거문고가 있지만, 누구와 함께 어루만질까.
日居月諸，矯首以佇	해이시여 달이시여, 고개를 들고서 기다리네.

신흙은 화도사언시에 自序를 병기하지 않고, 도연명의 사언시와 오언시 및 「歸去來辭」에 화운한 120수를 아우르는 「和陶詩序」를 별도로 지었다. 도연명의 原詩와 같이 제1~2구를 疊字로 시작하였는데, 제1~2구는 제2장의 제1~2구에서 변형된 형태의 疊句인 “惟風其烈，惟雨其濛”으로 구사되었다. 또한 제7구의 “日居月諸”는 도연명의 사언시 「命子」 제10장

32) 도연명의 「귀거래사」에 “樂琴書以消憂[거문고와 책을 즐기며 근심을 없앤다.]”라고 하였고, 사언시인 「答龐參軍」 제1장에서 “衡門之下，有琴有書。載彈載詠，爰得我娛.[사립문 아래에, 거문고와 책이 있네. 튕기기도 하고 읊조리기도 하며, 이에 내 즐거움을 얻노라.]”라고 하였다.

에서 구사된 것으로, 『시경』에서 유래하는 시구이다.³³⁾ 도연명의 原詩와 차별되는 수사적 특징은 제3구의 “瞻彼同好”에 있다. ‘瞻彼~’는 『시경』의 常用句型으로,³⁴⁾ 도연명의 사언시에서 볼 수 없는 것이다.

신흠은 1613년에 대북과가 일으킨 癸丑獄事에 연루되어 삭탈관직 당하고 김포로 축출되었다가 1617년에 다시 문책되어 춘천으로 유배되었는데, 소식의 ‘화도시’를 보고 처지와 마음에 부합되는 것이 있어 소식을 벗으로 삼고 도연명을 스승으로 삼는 마음으로 화도시를 지었다. 따라서 신흠의 화도시 창작에는 소식이 惠州와 儋州로 유배된 시기에 ‘화도시’를 지었던 것과 동일시하는 의식이 놓여 있다.³⁵⁾

이러한 배경을 감안하면 위 시에 나타난 현실과의 괴리로 인한 고독감은 도연명과 김시습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특히 제7~8구에서 해와 달에게 하소연하며 고개를 들고 기다린다고 한 표현은 君恩을 바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신흠의 화도시에는 유배된 처지에서 탈속을 지향하면서도 현실참여를 견지하는 이중성이 드러나기도 한다.³⁶⁾

유계, 「次陶停雲 寄尹吉甫(宣舉)도연명의 「정운」에 차운하여 길보 윤선거에게 부치다」, 제1장

33) 『시경·邶風』, 「柏舟」 제5장, 「日居月諸, 胡迭而微. 心之憂矣, 如匪澣衣. 靜言思之, 不能奮飛.」의 주자 김주, “居諸, 語辭.[거와 저는 어조사이다.]”: 『시경·邶風』, 「日月」의 주자 김주, “日居月諸, 呼而訴之也.[일거월저는 해와 달을 부르면서 하소연하는 것이다.]” 참조.

34) 대표적으로 하나만 예거하면 다음과 같다. 『시경·邶風』, 「雄雉」 제3장, “瞻彼日月, 悠悠我思.”

35) 申欽, 『象村稿』 권56, 「和陶詩序」, “余獲戾于朝, 一逐而歸于田, 再逐而累于窮峽, 於世已贅疣矣. 既無所事事, 間取簡策閱之, 如夢境已復置之. 一日, 見蘇長公和陶詩, 深有契於衷. 蓋蘇翁之偃蹇折困于惠于儋, 髣髴於余, 而乃若陶翁之高標清節, 余之景慕又不啻蘇翁. 茲故踵其和而繼和之, 凡一百二首. 噫, 九原可作, 吾其麗澤於蘇, 而函丈於陶乎. …” 참조.

36) 김주백은 「상촌 신흠의 화도시 연구」(『한문학논집』 10, 근역한문학회, 1992)에서 신흠의 화도시가 지닌 시세계를 ‘현실괴리와 고독’, ‘지절과 도학의 구현’, ‘자연친화와 낙천명’, ‘탈속과 현실애착의 이중성’으로 분석한 바 있다.

山有停雲, 以陰以雨	산에 머문 구름 있어, 흐려지며 비 내리네.
谷有幽人, 德音賒阻	골짜기에 은자가 있는데, 덕음은 막혔다네.
泠泠絲桐, 載按載撫	맑디맑은 거문고를, 당기다가 어루만지네.
鍾期不見, 使我翹佇	종자기는 보이지 않아, 발돋움하여 기다리네.

유계는 화도사언시의 각 작품에 自序를 병기하지 않았고, 화도사언시 전체를 아우르는 서문도 짓지 않았다. 그러나 도연명의 「時運」에 화운한 「次陶時運」은 시제 끝에 사언구로 “彼以樂春, 我以悲秋.[그(도연명)는 봄에 즐거워하였는데, 나는 가을에 슬퍼한다.]”라고 부기하여, 나름대로 도연명의 사언시가 지닌 형식을 변주하기도 하였다.

도연명의 原詩와는 다르게 제1구를 疊字로 시작하지 않고 제6구에 ‘泠泠’으로 疊字를 구사하였는데, 제3장에서는 “林林群卉, 或悴或榮.[맑고 많은 여럿 화초들, 혹은 시들고 혹은 꽃피었네.]”로 제1구를 疊字로 시작하기도 하였다. 도연명의 原詩와 차별되는 수사적 특징은 제2구의 ‘以陰以雨’에 있다. ‘以~以~’는 앞에서 거론했듯이 『시경』의 常用句型으로 ‘以陰以雨’는 『시경』에서 유래하는 시구인데,³⁷⁾ 도연명의 사언시에서는 구사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제6구의 ‘載按載撫’의 ‘載~載~’는 『시경』의 常用句型으로,³⁸⁾ 도연명의 「귀거래사」뿐만 아니라 사언시에서도 여러 차례 구사된 것이다.³⁹⁾

유계는 金長生의 문인으로 『家禮源流』와 『麗史提綱』을 저술할 정도로 예학과 사학에 정통하였으며, 宋時烈·宋浚吉·尹宣舉·李惟泰 등과 함께 忠

37) 『시경·邶風』의 「谷風」 제1장에 “習習谷風, 以陰以雨.[훈훈하게 불어오는 동풍에, 흐려지며 비가 내리네.]”라고 하였다.

38) 대표적으로 『시경·邶風』의 「載馳」에 “載馳載驅, 歸唁衛侯.[말 달리고 수레 몰아, 돌아가 위후를 위문하리다.]” 하였는데, 주자 집주에 “載, 則也.”라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載’는 무의미한 어조사로 본다.

39) 도연명의 「귀거래사」에 “乃瞻衡宇, 載欣載奔.[이내 초라한 내 집 보이니, 기뻐하며 달려가네.]”라고 하였고, 사언시에 구사된 예는 다음과 같다. 「時運」 제2장, ‘載欣載矚’; 「酬丁柴桑」 제2장, ‘載言載眺’; 「答龐參軍」 제1장, ‘載彈載詠’; 「歸鳥」 제2장, ‘載翔載飛’

淸山林 五賢으로 일컬어졌다. 그는 1649년 仁祖의 묘호를 정할 때 ‘祖’자의 사용을 반대하고 ‘宗’자를 주장하다가 이듬해 선왕을 욕되게 하였다는 죄로 온성과 영월에 유배되어 1652년 유배에서 풀려났다. 그 후 1653년에 「次陶歸去來辭」를 지었고,⁴⁰⁾ 1654년에는 송시열과 윤선거를 부여의 阜蘭寺 虎巖에서 만나고 돌아온 뒤 栗谷과 牛溪의 학파가 갈라설 것을 예언하며 자손들에게 간여하지 말라고 경계하였다.⁴¹⁾ 유계의 화도사언시는 송시열과 윤선거를 만나고 돌아온 뒤에 지은 것으로,⁴²⁾ 그의 화도사언시 5題 중에서 2題는 그들에게 보낸 시이다.

이러한 배경을 감안하면 위 시에서 ‘幽人’은 유계 자신을, ‘德音’은 효종의 召命을, ‘鍾期’는 윤선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유계의 화도사언시는 탈속의 추구보다는 현실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처지에서 오는 悲慨의 정서가 농후한데, 위 시의 제3장 제5~8구에서는 “有口靡宣, 有趾靡征. 終年離索, 概念浮生.[입이 있어도 펼 데가 없고, 발이 있어도 갈 곳 없네. 일 년 내내 벗들과 떨어져 살면서, 뜬구름 같은 인생 개탄하네.]”라고 하였다.

김수항, 『同雲四章 次停雲韻』(먹구름 4장, 『정운』에 차운하다), 제1장
鬱鬱同雲, 濛濛零雨 자욱하게 먹구름 끼고, 부슬부슬 비가 내리네.
言念君子, 山海其阻 군자를 생각하지만, 산과 바다로 막혔네.
我佩之華, 誰與玩撫 내가 차고 있는 꽃을, 누구와 완상하며 어루만질까
采采三秀, 跂予以佇 영지를 캐고 캐면서, 발돋움하고 기다리네.

김수항은 1674년 영의정이었던 형 김수홍 대신 좌의정에 임명되었는

40) 俞榮, 『市南集』 권1, 詞賦, 「次陶歸去來辭(癸巳)」 참조.

41) 이상 유계의 행력은 한국고전번역원의 『市南集』 해제를 참조하였다.

42) 俞榮, 『市南集』 권1, 和陶詩(二十章), 「次陶停雲寄尹吉甫(宣學) ○甲午[1654]와 「宋英甫(時烈)見枉 旣別 不勝眷言之情 次陶答龐參軍韻 却寄求和」 및 『宋子大全』 권152, 「祭俞市南文」, “昔我來茲[입천-필자], 篔菊青黃. 對床連宵, 或詠且觴. 伊後投我, 和陶短章. 勉以大中, 勿之有忘. …” 참조.

데, 송시열을 필두로 한 서인이 2차 禮訟에서 패배하여 송시열은 1675년 6월에 경상도 장기로 유배되고, 김수항은 尹鑄許積許穆의 횡포를 논하다가 같은 해 7월에 전라도 영암으로 유배되었다.⁴³⁾ 김수항의 화도시는 모두 50수로, 1675년에 영암으로 유배를 떠나면서 지은 작품부터 1677년 봄까지 지은 작품이 『文谷集』 권7에 ‘和陶詩(五十首)’라는 편명으로 수록되어 있다.

신흙의 화도시처럼 김수항의 화도시에도 소식이 惠州와 儋州로 유배된 시기에 ‘화도시’를 지었던 것과 동일시하는 의식이 놓여 있는데,⁴⁴⁾ 유배지로 떠나는 여정과 유배지에서 겪는 일상에 맞춰 도연명의 오언시와 사언시를 화운하였다는 독특한 체제를 지닌다. 그 가운데 화도사언시는 4題 22章으로 ‘화도시(50수)’의 편차상 제11·12·14·15번째로 위치하는데, 영암에 도착한 이후 겨울 동안에 지은 것이다.⁴⁵⁾ 그는 화도사언시의 각 작품에 自序를 병기하지 않았고, 화도시 50수 전체를 아우르는 서문도 짓지 않았다.⁴⁶⁾ 이어서 위 시의 형식과 수사적 특징을 살펴본다.

도연명의 原詩와 같이 제1~2구를 疊字로 시작하고, 제1구의 ‘同雲’을 시제로 삼았다. ‘同雲’은 『시경』에서 유래하는 시어로, 눈이 내리기 전 하늘에 가득히 낀 한 색깔의 구름을 뜻한다.⁴⁷⁾ 도연명의 ‘停雲’이 봄에 지어진 것에 비해 그의 시는 겨울에 지어졌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자신만의 題名을 붙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제1~2구는 제2장의 제1~2구에서 변형된 형태의 疊句인 “同雲其鬱, 零雨其濛.”으로 구사되었고, 제3구의 ‘言念君子’는 『시경』에서 유래하는 시구로⁴⁸⁾ 도연명의 사언시에서는 구사되지

43) 이상 김수항의 행력은 한국고전번역원의 『文谷集』 해제를 참조하였다.

44) 金壽恒, 『文谷集』 권3, 「四月初九日書懷」, “空追坡老和陶詩” 참조.

45) 金壽恒, 『文谷集』 권7, 和陶詩(五十首), 「次命子詩韻 書與協行 兼示諸兒」 제9장, “汝隨我南, 時維流火. 迨茲水至, 汝始辭我.” 참조.

46) 도연명의 오언시인 『歸園田居』에 화운한 「次歸園田居韻」만 시제에 이어 자서가 부기되어 있다.

47) 『시경·小雅』의 「信南山」 제2장에 “上天同雲, 雨雪雰雰.”라고 하였고, 주자 집주에 “同雲, 雲一色也. 將雪之候如此.”라고 하였다.

않은 것이다. 앞서 살펴본 작시 배경을 감안하면 ‘言念君子’는 戀君之情으로 볼 수 있는데, 제3장의 제5~8구에서는 “寄言浮雲, 我心偕征. 德音莫違, 惠我後生.[뜬구름에 말을 전하니, 내 마음과 함께 가네. 덕음에 어긋나지 않으면, 우리 후생에게 은혜 베푸시리라.]”라고 하였다.

김수향이 도연명의 사언시가 지닌 형식과 수사적 특징을 수용하고 변주한 양상은 상당히 다채롭다. 특히 그는 이전 문인들이 짓지 않았던 도연명의 「命子」와 「歸鳥」에 화운한 작품을 지었는데, 「次命子詩韻 書與協行 兼示諸兒[「命子」시에 차운하여 창협이 가는 길에 써서 주고 여러 자식들에게도 아울러 보여주게 하다]는 도연명의 原詩가 지닌 조상 찬미와 자식 훈계의 내용을 수용하여 내면화하였고, 「鳴雁四章 次歸鳥韻[우는 기러기] 4장으로 「歸鳥」에 차운하다]는 도연명의 原詩가 지닌 歸隱에 대한 감회의 내용을 유배지에서의 憂愁로 변주하여 내면화하였다.

조유수, 「和停雲四首」, 제1장

花晨柳夕, 每多風雨	꽃핀 새벽과 버들 물들인 석양, 매번 비와 바람이 많네.
湖園可遊, 泥路伊阻	호숫가 동산은 노닐 만한데도, 진흙탕 길로 막혔다네.
一詠誰和, 孤琴獨撫	한번 읊조리면 누가 화답할까, 외론 거문고 홀로 만질 뿐.
君好愆期, 我不再佇	그대는 기일을 잘 어기니, 나는 다시 기다리지 않으리.

조유수는 다음에 살펴볼 조종진의 중증조가 되는데, 그의 화도사언시 3題 14章은 72세인 1734년에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⁴⁹⁾ 조선조 ‘화도사언시’ 문인 중에서 최고령의 나이에 지은 것으로, 창작 시기에 그는 ‘散人’⁵⁰⁾

48) 『시경秦風』, 「小戎」 제1~3장, “言念君子, 溫其如玉.” “言念君子, 溫其在邑.” “言念君子, 載寢載興”

49) 조유수의 화운시는 『后溪集』 권4의 「癸丑[1733]除夕」과 「乙卯[1735]元朝試筆 又次豐原韻」의 사이에 수록되어 있다. 그의 문집이 詩體에 관계없이 저작 연대순으로 편차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여 추정하였다. 또한 도연명의 사언시 「時運」을 화운한 「和陶靖節時運四首韻」의 제4장에서 “依然水木, 繞此二如.[예전 그대로 물과 나무는, 이곳 이어당을 둘러싸네.]”라고 하였다. 이로써 본다면 조유수의 화도사언시는 新村의 二如堂에 거주하던 시기에 지은 것이다.

이라고 자처할 정도로 심적인 고뇌를 겪는 상황이 아니었다. 따라서 위의 시에 드러난 고독감은 그리 절박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앞에서 거론했듯이 그의 화도사언시에는 『시경』의 시구가 몇 개 정도 차용됐을 뿐, 疊字와 疊句 및 『시경』의 常用句型은 구사되지 않았다. 조선 조 ‘화도사언시’ 중에서 도연명의 사언시가 지닌 수사적 특징을 수용한 정도가 가장 낮는데, 그 이유를 당대의 문풍과 그의 문학적 지향에서 찾을 수 있다.

조유수는 김창협·김창흡 형제와 교유하였고 詩才로 당대에 명성이 높았으나 중년 이후로는 벼슬과 과거에 뜻을 두지 않고 문장과 史書에 몰두하는 한편, 산수가 좋은 지방의 외직으로만 돌았다. 그는 1727년(65세) 무주부사로 부임하였다가 이듬해인 1728년에 서울로 돌아와서는 新村에 二如堂을 짓고 시를 지으며 소요하였다. 그는 신촌에 거주하던 시기에 인근의 東湖에 거처하던 宋成明과 왕래하였고, 耳溪 洪良浩의 조부인 芸窩 洪重聖, 槎川 李秉淵, 溪西 崔柱岳, 橋西 曹夏奇, 謙齋 鄭澈 등과 詩社를 결성하였다. 조유수의 교류 관계에서 주목할 점은 그가 농암과 삼연의 영향으로 18세기 전반기에 형성된 시단의 眞詩 운동과 화단의 진경산수화풍을 선도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다.⁵¹⁾

이러한 배경을 감안하면, 조유수의 화도사언시가 수사적 측면에서 도연명의 사언시를 수용한 정도가 낮은 이유는 18세기에 대두한 개성주의와 眞詩 추구에 있다. 따라서 그의 화도사언시는 대체로 만년의 전원생활로 유유자적하는 모습과 안분지족하는 마음을 피력하고 있으며,⁵²⁾ 더 나

50) 趙裕壽, 『后溪集』 권4, 「和陶靖節時運四首韻」 제1장, “老未服勤, 納祿于朝. 區處散人, 有此寬郊. 彼退耕者, 亦自雲霄. 笑矣新農, 毋擷稚苗.” 참조. ‘散人’은 벼슬하지 않고 전원에서 한가하게 지내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51) 조유수의 행력과 교류 관계 및 문학적 지향에 대해서는 이훈, 『동해 조종진의 시문학 연구 - 기행시문집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pp.93-95 참조.

52) 예를 들면 「和陶靖節時運四首韻」 제3장 제1~4구의 “斜川始遊, 將浴乎沂. 春天眞樂, 二子其歸.[사천을 비로소 유람하고, 장차 기수에서 목욕하려네. 봄날 참되게 즐기다가, 벗들과 돌아오리라.]”와 「和勸農六首」 제5장 제1~4구의 “老當休

아가 장자적 사유도 엿볼 수 있다.⁵³⁾

조종진, 「停雲」, 제1장

瞻彼停雲, 不霎而雨 저 머문 구름을 보다가, 얼마 안 되어 비 내리네.
 后土不乾, 無邇匪阻 대지는 마르지 않겠지, 가깝고 먼 곳 할 것 없이.
 雖有杜康, 枯桐孤撫 비록 두강[술]이 있지만, 외로이 거문고 어루만지네.
 獨也無朋, 竟夕虛佇 혼자라 벗이 없는데도, 밤새 하릴없이 기다리네.

제1구의 ‘瞻彼~’는 신희의 「停雲」에서 고찰했듯이 『시경』의 常用句型이다. 위 시에서 疊字는 구사되지 않았는데, 조종진은 화도사언시 전체에 걸쳐 수많은 疊字를 구사하였다. 그러나 疊句는 화도사언시 전체에서 구사되지 않았다. 疊句의 운용을 제외하면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문인들보다 疊字의 구사와 『시경』의 시구 차용 빈도가 월등히 높다.

앞에서 거론했듯이 조종진의 화도사언시에는 마지막 운자를 原詩의 운자와 동일한 韻目에 속한 다른 글자로 전환하는 依韻의 압운 방식을 구사한 작품이 있다. 마지막 구는 시상을 끝맺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운자를 바꾼다는 것은 의도적일 수가 있다. 해당 작품을 살펴본다.

도연명, 「勸農」, 제6장

孔耽道德, 樊須是鄙 공자는 도덕에 열중하여, 번수를 비루하게 여겼네.⁵⁴⁾

歇, 士固窮匱. 七十之翁, 更何所冀.[늙으면 마땅히 쉬어야 하니, 선비의 고궁은 다해버렸네. 칠십 먹은 노인이, 다시 무엇을 바라랴.]에서 유유자적의 모습과 안분지족의 마음을 살필 수 있다. ‘固窮’은 『논어衛靈公』에서 유래한 것으로, 道義를 고수하면서 빈궁한 처지를 편안하게 여기는 것을 말한다.

- 53) 「和陶靖節時運四首韻」 제2장 제5~8구에서 “智也無涯, 年數不足. 翫歲而生, 逢春且樂.[지식은 끝이 없다 했는데, 햇수는 부족하구나. 세월 즐기며 살다가, 봄을 만나니 또한 즐겁네.]”라고 하였다. ‘智也無涯’는 『莊子養生主』에 “吾生也有涯, 而知也無涯, 以有涯隨無涯, 殆已.[우리의 생명은 끝이 있으나 지식은 끝이 없는 것이니, 끝이 있는 것으로 끝이 없는 것을 따르자면 위태로울 뿐이다.]”라고 한데서 유래한다.

- 54) 『논어子路』에 공자의 제자인樊遲가 농사일을 배우길 청하자 공자가 그를 소인이라고 평한 내용이 있다.

董樂琴書, 田園不履 동중서는 거문고와 책을 즐겨, 전원을 밟지 않았지.
若能超然, 投迹高軌 만약 초연할 수 있다면, 높은 궤적에 발자취를 두어야 하리.
敢不斂衽, 敬讚德美 감히 옷깃 여미고 덕의 아름다움을 공경히 찬양하지 않았는가.

조종진, 『勸農』, 제6장

世有君子, 吾儕其鄙 세상에 군자가 있으니, 우리들이 어찌 비루하라.
各安厥職, 視其素履 각자 자기 직분 편안히 여기고, 평소의 본분 살펴야 하네.
先民有言, 納之于軌 옛날 현인께서 하신 말씀을, 법도로 받아들여야지.
嗟嗟農夫, 言非耄矣 아아! 농부여, 내 말은 노망나서 하는 말이 아니네.

도연명의 「勸農」은 제1장부터 제5장까지 농경의 기원 및 농사의 즐거움과 중요성을 피력하는 한편, 제6장에서는 고상한 학덕을 쌓는 군자의 삶도 옹호하였다. 조종진의 시는 도연명의 原詩가 지닌 내용에 입각하여 농경하지 않는 자신의 명분을 농부에게 설득하는 논조를 띤다. 제5구의 ‘先民有言’과 제8구의 ‘言非耄矣’는 『시경』에서 유래하는 시구이다.⁵⁵⁾ 조종진은 原詩의 마지막 운자인 ‘美’를 ‘矣’로 전환하였는데, ‘美’와 ‘矣’는 上聲 ‘紙’ 운목에 속한다. 和韻의 압운 방식의 하나인 依韻을 구사하여 原詩의 詩意를 변주한 양상으로 볼 수 있다.

조종진의 화도사언시는 모두 7題 30章으로, 그의 문집인 『東海公遺稿』(필사본) 책8의 『東海謾錄(戊戌: 1808)』에 ‘和靖節集’이라는 편명으로 수록되어 있다. 양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도연명의 사언시 9제 44장을 모두 화운한 이만수의 화도사언시 다음으로 위치한다.

조종진은 1805년 39세의 나이로 문과에 급제하였는데, 藝文館 檢閱로 임명되는 1808년 6월 전까지 승정원의 임시관직인 假注書에 차출되는 일이 반복되었다. 거주서로 차출될 때마다 그는 나아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55) ‘先民有言’은 『시경·大雅』, 「板」 제3장에 “先民有言, 詢于芻蕘.[선현들이 말씀하되, 나무꾼에게도 물으라 했네.]”라는 구절을 차용한 것으로, 주자 집주에 “先民, 古之賢人也.”라고 하였다. ‘言非耄矣’는 『시경·大雅』, 「板」 제4장에 “匪我言耄, 爾用憂譴.[내 말이 노망나서 한 말이 아니거늘, 너는 근심을 농담으로 여기네.]”라는 구절을 차용한 것이다.

懸病하여 나아가지 않기도 하였다.⁵⁶⁾ 그의 화도사언시는 검열로 임명되기 직전인 1808년 봄에 지은 것이다. 따라서 그의 화도사언시에는 「榮木」 제3장에서 “來日鼎鼎, 不畜伊富. 勉勉自葆, 無用中疚.[내일도 빨리 지나가리니, 저 부유함을 탐하지 않네. 힘쓰고 힘써 스스로 보중해야지, 쓸모없는데다가 병들어 있으니.]”라고 한 것처럼 淸宦要職에 대한 욕구를 억누르려는 의지가 표출된다.

2) ‘和意不和韻’ 유형

‘和意不和韻’ 유형은 도연명 原詩의 운자를 재사용하지 않으면서 原詩의 詩意를 수용하여 내면화한 것으로, 조선조 ‘화도사언시’ 중에서 김창협이 작품이 해당된다. 김창협은 25세 때인 1675년 7월에 부친을 따라 영암의 유배지에 왔다가 그해 겨울에 서울로 돌아갔다. 이때 귀경하는 김창협 편에 써서 준 시가 앞에서 거론하였던 김수항의 「次命子詩韻 書與協行 兼示諸兒」이다. 따라서 김창협의 도연명 사언시에 대한 이해는 부친인 김수항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김창협은 부친을 포함한 이전 문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화도사언시를 지었다.

김창협의 화도사언시는 도연명의 사언시 중에서 「停雲」·「時運」·「榮木」의 3題 12章를 和作한 것으로, 그의 문집인 『農巖集』 권1에 수록되어 있다. 먼저 그의 詩題를 살펴본다.

「山居無事 偶讀陶詩停雲以下三篇 撫時循事 情致適同 輒爾和成 只取義近 不復次韻[산에 거처하여 일이 없었다. 우연히 도연명의 시 「停雲」 이하 세 편을 읽다가, (도연명이) 時運을 어루만지고 事理에 따른 것이 (나의) 정취와 때마침 같았다. 문득 和作하여 이루었는데, 다만 뜻이 근접함을 취했을 뿐, 次韻을 반복하지는 않았다.]」

56) 이훈, 앞의 논문, p.87 참조.

김창협(金昌協)의 詩題는 四言句가 포함된 문장 형식으로 창작 배경과 방식을 서술하고 있어 서문의 역할을 겸하고 있다. 그가 화도사언시 각 작품에 自序를 병기하지 않고 화도사언시 전체를 아우르는 서문도 짓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詩題의 “輒爾和成 只取義近 不復次韻”에서 드러나듯이, 그의 화도사언시 창작 방식은 ‘和意不和韻’ 유형에 해당된다. 그는 각 작품의 말미에 ‘右擬停雲’·‘右擬時運’·‘右擬榮木’이라고 부기하였는데, ‘次’자나 ‘和’자를 쓰지 않고 ‘擬’자를 쓴 이유도 그만의 창작방식에서 기인한다.

김창협(金昌協)의 화도사언시는 그의 나이 30세인 1680년 2·3월경에 지어진 것이다.⁵⁷⁾ 이 시기에 그는 永平의 鷹巖에 있는 집에 거처하였는데, 1680년 3월에 부친인 김수항(金守恒)이 특명으로 석방되어 영의정이 되자 부친을 따라 서울로 돌아왔다.⁵⁸⁾ 따라서 그의 화도사언시는 부친이 석방되기 전에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서 그의 화도사언시를 살펴본다.

‘擬停雲’ 제1~2장

幽幽崇山, 鬱鬱灌木	깊고 그윽한 높은 산, 울울창창한 떨기나무.
春氣肆和, 風日清淑	봄기운 온화하고, 바람과 햇빛 맑고 깨끗하네.
嘉蔬載苞, 濁醪新熟	맛난 나물 쌓여있고, 막걸리 새로 익었다네.
我無良朋, 誰與相屬	나에게 좋은 벗 없으니, 누구와 함께 권할까.

57) 김창협(金昌協)의 화도사언시는 『農巖集』 권1의 「次季愚韻(庚申: 1680)」과 「夜坐望楓溪憶昨飲 追寄鎮安使君(族兄盛達)行軒(辛酉: 1681)」 사이에 수록되어 있다. 그의 화도사언시 바로 앞에 수록된 시가 「春日齋居 漫用陶辭木欣向榮泉涓始流 分韻爲詩」로, 도연명의 「귀거래사」 가운데 “木欣向榮 泉涓始流”라는 구절을 운자로 삼아 8수의 연작시로 지은 것이다. 이 시에서 제1수의 첫 구에 ‘仲春天氣佳[2월이라 날씨가 좋아]’라고 하였다. 또한 그의 화도사언시에도 ‘春’자가 쓰였다.

58) 金昌協, 『農巖集』 권35, 附錄, 「年譜(上)」, [庚申(先生三十歲) 二月 記隱求庵], “記略曰 余結屋數椽, 而竊取夫子隱求之語名之.”; [三月 議政公特拜領相 赴召 隨還京師] 참조. ‘隱求庵’은 영평[현 경기도 포천] 응암의 宅號이다. 「年譜(上)」에 의하면, 김창협(金昌協)은 1678년 가을에 부친 김수항(金守恒)이 철원으로 量移되자 따라갔고, 1679년 8월에는 영평의 응암에 터를 잡고 집을 지은 후 그해 11월에 온 가족을 데리고 응암으로 들어갔다.

晏晏我室, 環堵蓬華	편하고 편한 나의 집, 사방 흙벽과 사립문.
林無駭獸, 巷無深轍	숲엔 놀랄 짐승 없고, 거리엔 깊은 수레자국 없네.
清琴在御, 圖史環列	맑은 거문고 곁에 두고, 서적은 빙 둘러 늘어났네.
我無良朋, 誰與永日	나에게 좋은 벗 없으니, 누구와 함께 긴 날 보낼까.

김창협은 도연명 原詩의 운자만 구사하지 않았을 뿐이지, 도연명의 사언시가 지닌 수사적 특징을 대체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제1장은 도연명의 原詩와 같이 제1~2구를 疊字로 시작하였고, 제7~8구를 제2장의 제7~8구에서 변형된 형태의 疊句로 반복 사용하였다.⁵⁹⁾ 이 외에도 다른 시에서는 『시경』의 시구를 차용하거나 『시경』의 常用句型을 채택한 예를 확인할 수 있다.⁶⁰⁾ 따라서 그의 화도사언시가 앞에서 살핀 다른 문인들에 비해 가장 적은 수량임을 감안하면, 도연명의 사언시가 지닌 수사적 특징을 수용한 정도가 낮다고는 볼 수 없다.

김창협의 화도사언시에는 불우한 환경에서 오는 자괴감이나 울분의 정서를 찾아볼 수가 없다. 오히려 詩題에서 “撫時循事 情致適同”라고 하였듯이 그는 時運을 살피고 사리를 따르는 마음가짐을 피력하고 있다. 이어서 관련된 시를 살펴본다.

‘擬榮木’ 제4장

時之逝矣, 我其偕邁	세월은 흘러가니, 나도 함께 매진하리라.
道之遠矣, 我其力詣	도가 심원하여도, 나는 힘껏 나아가리라.
行路憂憂, 豈敢中廢	행로가 끊임없지만, 어찌 감히 중도 포기하랴.
庶幾驅策, 以極遐軌	채찍으로 몰아치면서, 성인의 도 극진히 하리라.

59) 도연명의 「時運」에 화작한 시에서도 제1장의 제1~2구인 “瞻彼中林, 嘉樹離離.”가 제2장의 제1~2구에 “瞻彼中林, 嘉樹森森.”의 변형된 칩구로 구사되었다.

60) 도연명의 「停運」을 화작한 시의 제3장 제1~2구에서 “丁丁伐木, 在彼陵陂.”라고 하였는데, ‘丁丁伐木’은 『시경·小雅』의 「伐木」에서 “伐木丁丁, 鳥鳴嚶嚶.[나무 찍는 소리 쨍쨍 울리고, 새들은 재잘재잘 지저귀네.]”라고 한 구절을 차용한 것이다. 또한 제4장의 제3~4구에서는 “我懷同人, 載近載遠.”라고 하여, 『시경』의 상용구형인 ‘載~載~’를 채택하고 있다.

김창협의 求道에 대한 의지는 그의 부친인 김수항이 도연명의 「命子」에 화운하여 그에게 준 시 속에서 당부한 말이기도 하다.⁶¹⁾ 그래서 그는 1680년 2월에 영평의 응암에 있는 집을 ‘隱求菴’이라고 명명하고 「隱求菴記」를 지었는데, 기문의 내용이 위 시와 일맥상통한다.⁶²⁾ ‘隱求’는 『논어·季氏』에 공자가 “隱居以求其志, 行義以達其道. 吾聞其語矣, 未見其人也.[은거하면서 그 뜻을 구하고 의를 행하며 그 도를 행하는 것을, 나는 그러한 말은 들었지만 그러한 사람은 보지 못했다.]”라고 말한 것에서 유래한다.

도연명의 「榮木」 제4장도 공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求道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⁶³⁾ 이러한 詩意를 김창협은 수용하되, 原詩의 압운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변주하여 내면화한 것이다.

3) ‘和韻和意’와 ‘和韻不和意’ 결합 유형

‘和韻和意’와 ‘和韻不和意’ 결합 유형은 도연명 原詩의 운자를 재사용하면서 原詩의 詩意를 수용하여 내면화한 것과 독자적인 新意를 구현한 것이 병존하는 유형이다. 조선조 ‘화도사언시’ 중에서 이만수의 작품이 이

61) 金壽恒, 『文谷集』 권7, 和陶詩(五十首), 「次命子詩韻 書與協行 兼示諸兒」 제10장, “安時處順, 何適不可. … 日邁月征, 念哉敬哉.[시운을 편안히 여기고 순리대로 처하면, 어디를 간들 불가하겠는가. … 날로 달로 나아갈지니, 유념하고 공경하여라.]” 참조.

62) 金昌協, 『農巖集』 권23, 「隱求菴記」, “… 余之來洞陰也, 結屋數椽以居焉, 而竊取夫子隱求之語名之. 蓋夫子嘗誦此語而曰 ‘吾未見其人也’. 當是時, 其門人弟子, 蓋皆極天下之選矣, 而無可以當此者, 則是道也可謂至矣. 顧余何人而敢幾焉. 雖然, 士之求志也, 猶農夫之求穫也, 豈謂非其分哉. 抑其有得焉, 而可以達乎天下國家, 則難矣. 雖然, 亦沒身而已. 詩不云乎. ‘高山仰止, 景行行止.’ 夫子曰 ‘嚮道而行, 中道而廢, 忘身之老也, 不知年數之不足也, 俛焉日有孳孳, 斃而後已.’ 此余之志也. …” 참조. 두 번째 밑줄 친 공자의 말은 『禮記表記』에 나온다.

63) 도연명, 「榮木」 제4장, “先師遺訓, 余豈云墜. 四十無聞, 斯不足畏. 脂我名車, 策我名驥. 千里雖遙, 孰敢不至, [공자가 남겨주신 가르침을, 내 어찌 추락시키랴. 마흔에도 알려지지 못한다면, 이는 두려울만하지 않다고 하셨네. 내 좋은 수레에 기름칠 하고, 내 좋은 말에 채찍질하네. 천 리 길 비록 멀지만, 누가 감히 이르지 않으려 하리.]” 참조.

유형에 해당되는데, ‘和意’와 ‘不和意’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작품도 있지만 그 구분의 경계가 모호한 작품도 있다. 우선 이만수의 화도사언시가 창작된 배경을 살펴본다.

임신[1812]년 정월에 남쪽으로 경주에 유배되었다. 여름 5월 하순에 성은을 입고 북쪽으로 돌아왔다. 혜주의 고사를 인용하여 그저 회포를 풀고자 화도집을 지었다.⁶⁴⁾

이만수는 1810년 5월 평안도 관찰사에 제수되었는데 1811년 12월에 일어난 홍경래 난으로 인해 1812년 1월에 삭직되었고, 兩司에서 올린 상소에 의해 경주로 유배되었다가 그해 5월에 해배되었다.⁶⁵⁾ 그는 4개월의 유배기간 동안 소식이 惠州로 유배된 시기에 ‘화도시’를 지었던 것과 동일시하여 유배지에서의 회포를 풀고자 도연명의 사언시와 오언시 전체에 화운하고 ‘和陶集’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그는 도연명의 「歸去來辭」를 차운한 「鹿車亭賦(次歸去來辭韻)」도 지었으니, 현재로서는 조선조 문인 중에서 유일하게 도연명의 시 전체를 화운하였다는 문학사적 위상을 지닌다.

이만수의 화도사언시는 모두 9題 44章으로, 각 시제마다 짧은 문장의 自序가 병기되어 있는데, 도연명의 오언시를 화운한 작품에 自序가 병기되지 않은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도연명의 사언시가 형식적인 측면에서 『시경』의 양식을 계승한 것에 대해 인지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어서 이만수의 화도사언시가 지닌 수사적 특징과 ‘和意’와 ‘不和意’의 양상을 살펴본다.

이만수, 「風雨」

風雨, 思伯氏也.[「바람과 비」는 형님을 생각한 것이다.]

64) 李晩秀, 『屐園遺稿』 권13, 『和陶集』, 「和陶集序」, “壬申首春, 南遷于慶. 夏五下旬, 蒙恩北還. 用惠州故事, 聊以遣懷, 爲和陶集.”

65) 이영숙, 「극원 이만수의 화도시 연구」, 『동양한문학연구』 35, 동양한문학회, 2012, p.162 참조.

제1장

自我云遠, 感彼風雨 내가 멀리 간다고 하자, 저 바람과 비 걱정하셨지.
 日月流邁, 山川脩阻 세월은 흘러 지나가는데, 산과 물로 멀리 막혔네.
 不見其背, 疇與無撫 그의 등을 보지 못하니, 누구와도 위로하지 못하네.
 願言怡愉, 翹首以佇 기쁘게 해드릴 날 생각하며, 머리 들고 기다리네.

이만수는 도연명의 原題와는 다른 자신만의 題名을 붙이면서도 제2구에서 2字를 취해 명명하였고, 시의 말미에 ‘和停雲’이라고 부기하였다. 위 시에서 疊字는 구사되지 않았는데, 그는 화도사언시 전체에 걸쳐 다수의 疊字를 구사하였다. 아울러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疊句의 편장 방식과 『시경』의 시구 차용 및 『시경』의 常用句型 등도 확인된다. 제7구의 ‘願言~’은 앞서 고찰했듯이 『시경』 특유의 常用句型이다. 이와 같이 그의 화도사언시는 도연명의 사언시가 지닌 형식과 수사적 특징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詩題에 병기된 自序와 시의 내용을 보면 도연명의 原詩와는 구별되는 양상을 보인다.

도연명의 「停雲」은 벗을 그리워한 시인데, 이만수는 유배지인 경주에서 형인 李時秀(1745~1821)를 그리워하며 해배될 날을 고대하고 있다. 고독과 그리움이라는 주제의식은 동일하나 그리움의 대상이 다른 위 시를 ‘和意’로 보기에는 그 경계가 모호하다. 도연명의 「停雲」을 和作한 다른 문인들이 모두 ‘思友’의 주제의식을 견지하면서 내면화한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이만수, 「奕葉」

奕葉, 陳世德也[「여러 대」는 가문에 이어온 덕을 진술한 것이다.]

제3장

穆陵重光, 左右羣龍 목릉께서 거듭 빛나게 하시고, 좌우에는 명사들이 있었네.
 文忠奏牘, 扶社偉功 문충공이 황제께 글을 올려, 사직을 부지한 공훈 위대했네.
 混混元氣, 雲出岱封 용솟음치는 원기는, 태산의 封禪에서 구름 위로 솟았네.
 斯文宗師, 百世遺蹤 시문이 높이 우러르는 스승으로, 백세토록 자취를 남기리라.

위 시는 도연명의 「命子」를 화운한 것으로, 7대조인 文忠公 李廷龜(1564~1635)의 공훈을 예찬한 것이다. 1598년(선조31)에 명나라의 丁應泰가 임진왜란이 조선에서 왜병을 끌어들여 중국을 침범하려고 한다는 무고사건을 일으키자, 조정은 문장가를 엄선하여 奏文을 지어 올리게 하고 그중 잘된 것을 가려 뽑았는데 이정귀의 글이 채택되었고, 이정귀는 陳奏副使로 명나라에 들어가 주문을 올려 정응태의 주장이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밝혔다. 이정귀의 글은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명나라 관원과 문인들이 다투어 베껴갈 정도로 명문으로 평가받았다.⁶⁶⁾

도연명의 「命子」 8章은 가문의 내력과 조상의 공훈을 예찬하고 아들이子思처럼 되기를 기원한 시로, 그 중에서 제3장은 漢 高祖의 공신인 陶舍의 공훈을 예찬한 것이다. 따라서 위의 시는 도연명의 原詩와 주제의식이 일맥상통하여 ‘和意’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음 시는 ‘和意’가 아닌 ‘不和意’로 규정해야 할 정도로 도연명의 原詩와 확연히 구별된다.

이만수, 「有女」

有女, 演春歌也.[「아낙네」는 방아타령을 부연한 것이다.]

제1장

有女春歌, 方夜讀書	아낙네는 방아타령 부르고, 한밤중에 나는 독서하네.
戀彼諸姬, 以春爲娛	어여쁜 저 여러 동생들과, ⁶⁷⁾ 방아질하며 즐겨워하네.
莫如我春, 會蘇舊居	우리 방아타령만한 건 없으니, 회소곡도 옛날에 있었네.
虎嘯北籬, 猿吠南廬	범은 북쪽 울타리에서 울고, 삼살개는 남쪽 집에서 짓네.

위 시는 도연명의 「答麗參軍」(총6章)을 화운한 것으로, 작품 전체에 걸쳐 경주의 아낙네들이 방아질하는 모습과辛苦를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66) 李廷龜, 『月沙集』 권21, 「戊戌辨誣錄」 및 「丁主事(應泰)參論本國辨誣奏(戊戌冬)」 참조.

67) 원문의 「戀彼諸姬」는 『시경·邶風』의 「泉水」 제1장에서 “戀彼諸姬, 聊與之謀.[어여쁜 저 여러 동생들과, 에로라지 함께 상의하노라.]”라고 한 구절에서 유래한다. ‘戀’은 戀과 통용된다.

도연명의 原詩는 “龐爲衛軍參軍, 從江陵使上都, 過潯陽見贈.[방군이 위군 참군이 되어 강릉에서 수도로 사행 가다가 심양에 들러 만나서 증시하였다.]”라는 自序가 병기되어 있다. 도연명 原詩의 주된 내용은 자신의 생활상을 거론하고 각별한 교유의 정감을 표출하며 임무 수행 시에 안전을 기원한 것이다. 따라서 이만수의 「有女」는 自序의 大義뿐만 아니라 詩意에 있어서도 도연명의 原詩와 격차가 커서 독자적인 新意를 구사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18세기에 들어와 명말청초의 諸說이 급속도로 유입되었고, 18세기 후반에는 경화세족을 중심으로 明清 小品文에 대한 애호가 성행하게 되었다. 이에 정조는 문체반정을 시도하였고, 아울러 시의 전범을 수립하여 선양하는 詩選集 편찬 사업에 주력하였다. 이만수는 43세인 1794년에 문장의 폐단을 바로잡아 세상의 가르침을 삼으려는 정조의 뜻에 부응할 적임자로 선정되어 성균관 대사성이 되었고, 그 후 정조가 승하할 때까지 文風을 순화시키기 위한 일들을 수행해 나갔다.⁶⁸⁾ 앞서 살펴본 조종진 또한 1790년 24세의 나이로 생원시에 합격한 이후 성균관 유생으로서 정조의 문체반정과 시선집 편찬사업을 목도하였고, 교화론적 시관을 견지하면서 古風을 지향하였다.⁶⁹⁾

이러한 당대의 문풍과 문학적 지향이 19세기 전반기 조종진과 이만수의 화도사언시에 도연명의 사언시를 수용한 정도가 다시 높아진 이유이다. 특히 이만수의 화도사언시는 도연명 사언시 전체를 화운한 유일한 작품이라는 점과 도연명 사언시의 형식과 율격을 수용하여 내면화하면서도 독자적인 新意를 구현한 점에서, 조선조 ‘화도사언시’의 내부적 발전 정도에 있어 최고의 정점에 위치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68) 이영숙, 「극원 이만수의 화도시 연구」, 『동양한문학연구』 35, 동양한문화회, 2012, p.161 참조.

69) 조종진의 교화론적 시관과 고품 추구에 대해서는 이훈, 『동해 조종진의 시문학 연구 - 기행시문집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참조.

IV. 결론

본고는 陶淵明의 四言詩를 和作한 조선조 문인의 작품을 ‘和陶四言詩’로 명명하고, 도연명 사언시를 수용한 양상을 구명하면서 수용의 내부적 발전 정도와 문학사적 의미를 탐색한 것이다.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은 조선조 ‘화도사언시’ 문인은 김시습·신흠·유계·김수항·김창협·조유수·조종진·이만수 등으로,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도연명의 사언시는 형식과 수사적 측면에서 의식적으로 『시경』의 양식을 계승한 것으로, 復古 내지 尙古의인 성향을 지닌다. 이에 대한 조선조 ‘화도사언시’는 창작 과정에 古風을 추구하고자 하는 문학적 지향이 내포되어 있지만, 한편으로는 문인별 문학성의 차이로 인해 古風 추구 인식에 편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조선조 ‘화도사언시’는 詩題와 형식에서부터 다채로운 양상을 보이는데, 화도사언시 문인들은 도연명 사언시의 체제를 그대로 수용하는 한편 자신만의 개성으로 변주하기도 하였다. 개인별 창작 시기는 대체적으로 중년 이후이며 작가가 처한 상황은 심적인 고뇌를 겪던 시기였다. 이러한 양상은 도연명의 사언시가 言志와 述懷에 특장이 있음을 반증한다. 아울러 조선조 ‘화도사언시’의 창작 연대가 17세기에 집중된 것은 특기할 점으로, 이는 17세기에 들어와 古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한시사의 흐름과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

도연명 사언시와 조선조 ‘화도사언시’ 간에는 韻字에 차이가 있다. 조종진과 이만수의 경우는 마지막 운자를 原詩의 운자와 동일한 韻目에 속한 다른 글자로 전환하는 依韻의 방식을 구사하여 주제의식의 내면화를 구현하였다. 김창협의 경우는 도연명의 사언시가 지닌 주제의식에 부합하여 和作하되 和韻하는 방식으로 창작하지 않았다.

조선조 ‘화도사언시’에 있어서 가장 특색 있는 부분은 수사적 측면이다. 김시습의 경우는 도연명 사언시의 모든 수사적 특징을 함유한다. 그러나 17세기 신흠·유계·김수항·김창협의 경우에는 수용과 변주에 편차가 있다.

18세기 조유수의 경우에는 수용의 정도가 희박해졌으며, 19세기 전반기 조종진과 이만수의 경우에는 수용의 정도가 다시 높아졌다. 김창협이 도연명의 詩題를 활용하지 않은 점과 和韻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그의 작품은 조선조 '화도사언시'의 역사적 轉變 과정에서 전환점이 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김창협은 17세기에 대두한 복고주의 시풍에 비판을 가했고, 이로 인해 18세기는 개성주의가 주된 문풍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18세기 조유수의 작품이 수사적 측면에서 도연명의 사언시를 수용한 정도가 낮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정조의 문체반정과 詩選集 편찬 사업에 영향을 받은 19세기 전반기 관료문인들은 복고주의 내지 상고주의를 표방하였는데, 이것이 19세기 전반기 조종진과 이만수의 작품에 도연명의 사언시를 수용한 정도가 다시 높아진 이유이다.

이와 같이 조선조 '화도사언시'는 도연명의 사언시가 지닌 제특성을 시대별 문풍과 작가별 문학적 지향으로 재구성하는 내면화의 轉變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조선조 '화도사언시'의 창작 방식은 압운과 詩意의 수용 양상에 따라 '和韻和意' 유형, '和意不和韻' 유형, '和韻和意'와 '和韻不和意' 결합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和韻和意'의 유형은 도연명 原詩의 韻字를 재사용하고 詩意를 수용하여 내면화한 것으로, 김시습·신희유계·김수항·조유수·조종진의 작품이 해당된다. '和意不和韻' 유형은 도연명 原詩의 韻字를 재사용하지 않으면서 原詩의 詩意를 수용하여 내면화한 것으로, 김창협의 작품이 해당된다. '和韻和意'와 '和韻不和意' 결합 유형은 도연명 原詩의 운자를 재사용하되 原詩의 詩意를 수용하여 내면화한 것과 독자적인 新意를 구현한 것이 병존하는 경우로, 이만수의 작품이 해당된다. 특히 이만수의 화도사언시는 도연명 사언시 전체를 화운한 유일한 작품이라는 점과 도연명 사언시의 형식과 율격을 내면화하면서도 독자적인 新意를 구현한 점에서, 조선조 '화도사언시'의 내부적 발전 정도에 있어 최고의 정점에 위치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조선조 '화도사언시' 문인은 도연명의 사언시가 지닌 형식

과 율격 및 詩意를 수용하고 변주하면서 단순한 형식의 답습에서 벗어나 자신의 문학성으로 내면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조선조 '화도사언' 시가 지닌 제양상은 시대별 문풍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參考 文獻〉

- 金壽恒, 『文谷集』(한국문집총간 133집)
金時習, 『梅月堂集』(한국문집총간 13집)
金昌協, 『農巖集』(한국문집총간 161~162집)
宋國澤, 『四友堂集』(한국문집총간 속27집)
宋時烈, 『宋子大全』(한국문집총간 108~116집)
申 欽, 『象村稿』(한국문집총간 71~72집)
俞 榮, 『市南集』(한국문집총간 117집)
李晚秀, 『展園遺稿』(한국문집총간 268집)
李世龜, 『養窩集』(한국문집총간 속48집)
李廷龜, 『月沙集』(한국문집총간 69~70집)
丁若鏞, 『與猶堂全書』(한국문집총간 281~286집)
趙裕壽, 『后溪集』(한국문집총간 속55집)
趙琮鎮, 『東海公遺稿』(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이성호 역, 『도연명전집』, 문자향, 2001.
차주환 역, 『韓譯 陶淵明全集』,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초판2쇄).

- 北京大學北京師範大學中文系·北京大學中文系文學史教研室 編, 『陶淵明資料彙編(上下)』, 北京: 中華書局, 1962(2005 重印).
徐師曾 著, 羅根澤 校點, 『文體明辨序說』,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8.
袁行霈 撰, 『陶淵明集箋注』, 北京: 中華書局, 2003.
劉協 著, 范文瀾 注, 『文心雕龍注(上)』,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6(重印).

- 강지희, 「매월당의 「和淵明飲酒二十首」 연구」, 『민족문화사연구』 29, 민족문화사학회, 2005.
강지희, 「퇴계의 「和陶集飲酒二十首」에 나타난 도연명 수용 양상 - 소동파, 매월당과의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동방한문학』 44, 동방한문화회, 2010.
김보경, 「소식과 도연명의 「만남」 - 소식에 의한 도연명 전범화를 중심으로」, 『중국문학』

- 62, 한국중국어문학회, 2010.
- 김보경, 「한국 ‘화도시’ 연구 序說」, 『중국문학』 66, 한국중국어문학회, 2011.
- 김윤혜, 「매월당의 ‘화도시’에 대한 연구」, 『한문교육연구』 4, 한국한문교육학회, 1990.
- 김주백, 「상촌 신희의 화도시 연구」, 『한문학논집』 10, 근역한문학회, 1992.
- 남윤수, 『韓國의 「和陶辭」 研究』, 역락, 2004.
- 노경희, 「도연명 시어의 연원 - 사언시를 중심으로」, 『인문학지』 27, 충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3.
- 노우정, 「주희의 도연명의 시가 수용과 인격 비평- 주희에 의한 도연명의 충신으로서의 전범화」, 『온지논총』 35, 온지학회, 2013.
- 박혜정, 「도연명 사언시 연원 연구」,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안말숙, 「김수향의 화도시 고찰」, 『수련어문논집』 25, 부산여자대학교 수련어문학회, 1999.
- 이기원, 「퇴계선생의 『和陶集飲酒』 二十首 初探」, 『퇴계학보』 52, 퇴계학연구원, 1986.
- 이영숙, 「극원 이만수의 화도시 연구」, 『동양한문학연구』 35, 동양한문학회, 2012.
- 이영숙, 「회봉 하겸진의 화도시 연구」, 『남도문화연구』 18, 남도문화연구소, 2010.
- 이영숙, 「회봉 하겸진의 화도시와 동파 소식의 화도시 비교연구」, 『남명학연구』 39,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13.
- 이 훈, 「동해 조종진의 시문학 연구 - 기행시문집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임준철, 「조선 전기 화도시의 轉變」, 『한국한문학연구』 60, 한국한문학회, 2015.
- 장유승, 「17세기 고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전경원, 「다산 정약용의 사언시와 시경론 및 시인식의 상관성」, 『우리어문연구』 28, 우리어문학회, 2007.
- 정숙인, 「상촌 신희의 화도시 중 「飲酒」 20수 연구 - 도연명의 「飲酒」, 소식의 「和陶飲酒詩」와의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우리문학연구』 35, 우리문화회, 2012.
- 최우석, 「古代 四言詩와 唐代 律詩 속의 ‘雅正’ 審美觀」, 『중국어문논총』 26, 중국어문연구회, 2004.
- 최우석, 「도연명 사언시의 특색과 그 지위」, 『중국학논총』 20, 한국중국어문학회, 2005.

Abstract

*A Study on Acceptance Patterns of Tao Yuan-ming's Four Words Poems by the Literati in the Joseon Dynasty**

Lee Hoon **

This study named the works by the literati in the Joseon Dynasty as 'He Tao Si Yan Shi(和陶四言詩)' which were written to a given set of rhymes of Tao Yuan-ming(陶淵明)'s four words poems(四言詩), and explored the level of internal development and the significance of literary history while examining the acceptance patterns of Tao Yuan-ming's poetry. In this study, several writers were selected as the literati of 'He Tao Si Yan Shi' in the Joseon Dynasty: Kim Si-seup(金時習), Shin Hum(申欽), Yu Gye(兪棨), Kim Su-hang(金壽恒), Kim Chang-hyeop(金昌協), Jo Yu-su(趙裕壽), Jo Jong-jin(趙琮鎭), Lee Man-su(李晚秀), etc.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Tao Yuan-ming's four words poems, in terms of form and rhetoric, consciously inherited the style of 『Shi Jing(詩經)』, which had an inclination to restoration or tended towards classicism, that is to say the worship of ancient. In comparison 'He Tao Si Yan Shi' showed literary intentions to pursue the archaism, but on the other hand, there's a deviation in the perception of archaism due to the difference in individual literary inclinations. Hence 'He Tao Si Yan Shi' displayed varied aspects in the title and form, some writers accepted Tao Yuan-ming's format while others made some variations on it with their own personalities. The year in which poems were created generally coincided with the time when the writers suffered after middle age; this proves that Tao Yuan-ming's poems were effective in expressing one's personal feelings and intentions. It is also noteworthy that the creation period of 'He Tao Si Yan Shi' was concentrated in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6S1A5B5A07920366)

** Lecturer of Kangwon Univ. / lh8329@hanmail.net

the 17th century.

There seem to be observable differences in the rhyming words(韻字) between 'He Tao Si Yan Shi' of the Joseon Dynasty and Tao Yuan-ming's four words poems. Jo Jong-jin and Lee Man-su mainly changed their last rhyming words into different words which were in the same rhyme group(韻目) of the original poems, in order to realize the internalization of thematic consciousness. Kim Chang-hyeop wrote poems in accordance with the thematic consciousness of Tao Yuan-ming's four words poems, but he did not create poems in the way of bouts-rimes(和韻詩).

The most distinctive feature of 'He Tao Si Yan Shi' in the Joseon Dynasty is the rhetorical aspect. Kim Si-seup embraced every rhetorical expression technique of Tao Yuan-ming. In the 17th century, however, Shin-Hum, Yu-Gye, Kim Su-hang and Kim Chang-hyeop had different ways of accepting and making variations of it. Jo Yu-su, in the 18th century, accepted it at a very low level, but in the first half of the 19th century Jo Jong-jin and Lee Man-su absorbed it again at a high level. Considering that Kim Chang-hyeop did not use any title of Tao Yuan-ming's poems and even avoided the way of bouts-rimes, his works can be estimated to be located at a inflection point in the transformation process of 'He Tao Si Yan Shi'.

Kim Chang-hyeop criticized the restoration in poetry of the 17th century, which made it possible for individualism to become a main literary trend of the 18th century. That's the reason why Jo Yu-su's acceptance level of Tao Yuan-ming's four words poems in the 18th century was so low in terms of rhetoric. Furthermore, in the first half of the 19th century, the government official-literary men who were influenced by Munchebanjeong(文體反正) of King Jeongjo(正祖) claimed to support restoration or classicism. That's why the level of acceptance of Tao Yuan-ming's four words poems in the works of Jo Jong-jin and Lee Man-su was increased again.

As such, 'He Tao Si Yan Shi' experienced a process of transformation that was internalized by reconstructing the poetic qualities of Tao Yuan-ming's four words poems according to the periodical writing style and individual literary intention. Therefore the composition methods of 'He Tao Si Yan Shi' in the Joseon Dynasty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depending on the rhyme and acceptance patterns of themes: 'He Yun He

Yi(和韻和意), 'He Yi Bu He Yun(和意不和韻)' and a mixture of 'He Yun He Yi(和韻和意)' and 'He Yun Bu He Yi(和韻不和意)'. The type of 'He Yun He Yi' is to internalize by reusing the rhyming words of original poems and accepting the poetic themes. The works of Kim Si-seup, Shin Hum, Yu Gye, Kim Su-hang, Jo Yu-su and Jo Jong-jin can be included in it. And then, the type of 'He Yi Bu He Yun' is to internalize by not using any rhyming words of original poems but accepting the poetic themes. The works of Kim Chang-hyeop is considered to be of this type. Finally, the type of a mixture of 'He Yun He Yi(和韻和意)' and 'He Yun Bu He Yi(和韻不和意)' is a form of coexistence with internalization by reusing the rhyming words and poetic themes of original poems as well as expression of one's own themes. Lee Man-su's works correspond to this kind of type. In particular, Lee Man-su was the only one who followed the whole rhymes used by Tao Yuan-ming's four words poems and expressed his own themes while internalizing the form and meter of Tao Yuan-ming's poems. Considering these facts, Lee Man-su's 'He Tao Si Yan Shi' can be regarded as the highest peak in the degree of internal development of 'He Tao Si Yan Shi'.

【Key words】 Tao Yuan-ming(陶淵明), Four words Poems(四言詩), He Tao Si Yan Shi(和陶四言詩), archaism(古風), He Yun He Yi(和韻和意), He Yun Bu He Yi(和韻不和意), He Yi Bu He Yun(和意不和韻), internalization

투고일 : 10월 29일, 심사완료일 : 12월 2일, 게재확정일 : 12월 4일

